

연구 보고 2004-4

1999 - 200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

2004. 12

1999 - 200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

2004. 12

본 보고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04년 남북영화교류추진사업'의 일환인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사업을 위해 아래의 연구진에 연구 의뢰한 보고서입니다.

참 여 연 구 진

책임 연구원	이 정 <민족네트워크 대표>
공동 연구원	이상구 <파파빙고 대표>

목 차

머리말	9
1.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현황	11
1.1. 교류의 서막	11
1.2. 북한 애니메이션의 남한 내 방영	13
1.3. 북한 애니메이션의 남한 내 수입	15
1.4. 남북 공동제작 추진	16
1.4.1. 하나로텔레콤	16
'게으른 고양이 덩가' 제1탄 및 제2탄	16
'뽀롱뽀롱 뽀로로'	18
1.4.2. 야미	20
1.4.3. 코아필름 서울	20
'왕후 심청'	20
1.5. 공동제작시스템 구축	22
1.5.1. 공동제작시스템의 필요성	22
1.5.2. 엔트랙	23
1.5.3. 민족네트워크	24
2. 북한 애니메이션계의 현황	28
2.1. 일반 현황	28
2.1.1. 역사	28
2.1.2. 주요 작품	30
2.1.3. 주요 제작진	34
2.1.4. 해외 수주 및 작품 판매활동	35
2.1.5. 전문인력 양성	37

2.1.6. 영화음악	38
2.2. 제작기술 수준	39
2.2.1. 일반적 평가	39
2.2.2. 메인 프로덕션	41
2.2.3. 컴퓨터 창작	45
2.3. 애니메이션 제작사	46
2.3.1. 4.26아동영화촬영소	47
2.3.2. 평양정보센터 만화영화창작단	49
2.3.3. 삼지연창작사	50
3.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의 남북한 비교	53
3.1. 제작방식 비교	53
3.2. 전문용어 비교	55
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전망 및 대정부 제언	57
4.1. 남북협작의 당위성	57
4.2. 남북협작시 기대효과	59
4.3. 대정부 제언	61

부 록

북한 애니메이터 인명록	64
--------------------	----

사진과 표 목차

<사진 1> 2000년 11월 방북한 남한 영화인들	12
<사진 2> 남한 영화인들 애니메이션 교류 협의	13
<사진 3> 덩가의 캐릭터	18
<사진 4> 뽀로로의 캐릭터	19
<사진 5> '왕후 심청'의 한 장면	21
<사진 6> 동화 테스트 결과 토론	26
<사진 7> '령리한 너구리'의 주인공 너구리 캐릭터	32
<사진 8> '소년장수'의 주인공 쇠매 캐릭터	32
<사진 9> 북한 원화맨들이 그린 '닌자 거북이' 원화들	42
<사진 10> 4.26아동영화촬영소	47
<사진 11> 만화영화창작단이 설치된 평양정보센터	49
<사진 12> 삼지연창작사가 위치한 중국 단둥 시내	51
<표> 남북 애니메이션 전문용어 비교	55
<사진 13> 개성공단 위치도	60

머 리 말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사는 매우 일천하다. 1990년대 말에 짝이 트기 시작하여 이제 고작 4, 5년의 세월이 경과한 데 불과하다. 그 사이 어떤 짝은 북풍한설에 얼어 죽었고, 어떤 짝은 제법 형상을 갖추고 미구에 다가올지도 모를 봄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살아남은 것들이 너무 적다. 몇 포기엔 불과할 뿐더러 아직도 남은 꽃샘추위를 이겨낼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형편이 이러한 터여서 이 시점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를 쓴다는 일이 가당하거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 교류의 내용이 매우 빈곤하기도 하려니와, 그 자체도 남북한 사이의 교류라는 특수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보편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독법(讀法)을 가진 독자들의 구미에 맞추기도 쉽지 않을 터이다. 아직까지 남북 교류는 남북 양 정부의 매우 제한적인 법적,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무나 나서서 하기도 어렵고, 겨우 성사된 사업도 일반인이 소화해내기 쉽지 않은 매우 독특한 전개과정을 갖고 있다. 또 그 과정이 여러 민감한 주변환경(특히 정치적 환경)과 잇다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적으로 털어놓을 시기도 아니다. 교류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업 보호를 위해서 과정상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이 전무하다시피 할 뿐 아니라, 인적 접촉에는 더 제한성이 크다.

다만 필자들은 이처럼 곤궁한 처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곤궁을 발판 삼아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현실을 바탕 삼지 않고는 풍성한 미래의 교류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러한 교류를 가능케 할 현실의 에너지를 모을 수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백서에서는 그 동안의 교류사를 훑어보면서 교류 현황을 명백히 살피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앞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북한측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야 앞선 실패담이 뒤의 성공담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단편적 정보나 억측에 기대서 장님이 문고리 잡듯 하는 남북 교류 현실에 이 백서가 일정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때문에 남북의 애니메이션 교류 사례를 모조리

조사했으며, 대외에 노출된 북한의 애니메이션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다. 평양과 제 3국에서 적잖은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을 직접 만나거나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 주소를 취재했다. 남한에서 진행 중인 작품을 평양에 보내서 동화와 원화, 디지털 페인팅 등 메인 프로덕션 부분의 테스트를 실시했다. 북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파악했다. 때로는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필자들이 취재의 현장에서 느낀 의견을 다소 개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취재활동의 일부는 현재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회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남북교류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생의 길 또한 통일로 나아가는 교류의 길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류가 당장의 이익을 일궈내지 못할 것처럼 여겨진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적 이익을 지키고 경제적 대가를 충분히 보상하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는 비교적 밝은 전망 속에 그 미래가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백서가 남북교류에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교류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는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른 분야와 달리 과제의 대상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정보도 풍부하지 않는 남북 교류 분야인 탓에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가 터지지 못할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꾸준히 지원하면서 인내해 줬다. 거듭 감사한다. 그러나 독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필자들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 독자들의 목마름을 다 해소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질 백서에서 훌륭한 새 필자에 의해 보충되리라고 기대한다.

2004년 11월
이 정, 이상구

1.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현황

1.1. 교류의 서막

1998년 현대그룹이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문화교류는 전보다 훨씬 진일보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당시는 종전 45년이 다가옴에도 주류사회의 속내에는 여전히 냉전시대의 적대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런 시류를 거스르며 드문드문 조심스럽게 자라오던 교류의 단초들이 금강산 관광사업 개시를 전후하여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제 물을 만난 듯했다. 1998년 4월 리틀엔젤스합창단의 평양 공연을 필두로 대중음악과 체육, 예술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 교차 방문이 이뤄졌다. 이어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 문화교류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애니메이션부문의 교류도 논의의 장으로 올라왔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8월 북한을 방문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을 맞이한 자리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방북단으로부터 "만화영화와 컴퓨터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공동 진출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권고를 받고, "북남이 함께 영화나 제작물을 만들면 남쪽이 50 가져 가고 북측이 50을 가져 가고, 돈이 다 우리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을 정도였다. 법보다 김 위원장의 교시를 우선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애니메이션분야의 남북 교류에 나서는 데에 그만큼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날의 발언은 남한 애니메이션업계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2000년 11월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중심이 된 남한 영화계 대표단 10명이 방북하여 남북 영화교류 전반에 대해 북한측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방북단은 북한 유일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4.26아동영화촬영소의 연출가 김준옥 등 애니메이션 관계자들도 만났다. 방북단은 이 자리에서 애니메이션 합작사업을 제의했고, 북한측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방북단의 일원인 영화배우 문성근씨는 부친인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공동 제작할 것도 요청했다.

남북 문화교류 업체인 주식회사 민족네트워크가 주선하고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초청하여 마련된 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방북단에 참가한 인사는 임권택 영화감독을 비롯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문성근 영화배우, 강우석 영화감독, 영화진흥위원회 이용관 부위원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유인택 회장, 영화진흥위원회 이은위원, 주식회사 CJ엔터테인먼트 최평호 상무, 주식회사 민족네트워크 이정 대표이사, 주식회사 민족네트워크 박인범 이사 등이었다.



<사진 1> 2000년 11월 방북한 남한 영화인들이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4.26아동영화촬영소, 조선영화수출입사 등의 영화 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한의 적잖은 단체나 기업이 북한측과 애니메이션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50여 년간 막혀 왔던 남북 사이에 작지만 의미 있는 교류 통로들이 개설되기 시작했고, 점차 이것이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사진 2> 남한 영화인들과 만나 애니메이션 교류를 협의하고 있는 4.26아동영화촬영소의 연출가 김준옥씨(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북한 영화인들

이에 따라 북한 애니메이션을 수입하여 남한 내에서 상영하던 초기단계에서 현재는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작품을 공동 제작하는 보다 성숙된 단계로 남북 애니메이션의 교류는 확대돼 가고 있다. 다만 남북을 둘러싼 여러 부정적 요인들 때문에 교류의 열차는 아직도 제 속력을 내지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다. 본궤도의 진입에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북한 애니메이션의 남한 내 방영

북한의 애니메이션이 공중파방송을 통해 첫 공개된 것은 1999년 1월 인천방송(iTV)의 신년특집방송을 통해서였다. 인천방송은 '통일마당 남남북녀' 프로그램에서 각종 영상물을 통해 북한 사회를 엿보는 3부작 '영상으로 읽는 북한사회'를 방송하면서 1월 5일 오후 7시 제1편 '북한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통해 북한 애니메이션을 처음 공개했다.

이 날 방영된 작품은 '호박 따는 날', '음악경연에서 있는 일' 등이다. 인천방송은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제작기법, 제작자들, 캐릭터 등에 대한 분석도 프로그램에 곁들였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 애니메이션이 전파를 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것들은 작품의 일부를 잠시 보여준 데 불과해 인천방송이 작품 전부를 상영한 것과 비교된다.

2000년 6월 11일에는 교육방송(EBS)이 애니메이션 정보 프로그램 '애니토피아'를 통해 '북한 애니메이션 특집'을 마련했다. 이 날 오후 4시에 방송된 프로그램은 학용품 절약을 강조한 셀(Cell) 애니메이션 '연필의 소원'과 시간 약속의 중요성을 다룬 펫(Pet) 애니메이션 '멍멍이의 벽시계' 등 독특한 북한식 만화체가 눈길을 끄는 작품들을 소개했다. 또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년장수'와 '령리한 너구리'도 함께 방영했다.

북한 애니메이션이 남한 관객들 앞에 직접 상영된 경우도 있었다. 광주시 북구는 2000년 10월 제3회 자미(紫薇)축제 기간 중 북구 문화의 집 관람실에서 북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개최했다. 영화제에서는 '소년장수'(86년 작)를 비롯, '령리한 너구리'(87년 작), '호동 왕자'(90년 작) 등 3편이 상영됐다.

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도 북한 만화영화가 등장했다. 강원도 춘천국제만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00년 11월에 열린 '사이버 춘천애니타운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북한 만화영화 사이트를 개설, 인터넷 상에서 북한 애니메이션을 첫 소개했다. 이 사이트에는 '날개 달린 룡마', '찌 있는 개미' 등 6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각 작품당 5컷 가량의 주요 장면이 상영됐다.

이와 함께 KBS의 '남북의 창', MBC의 '통일전망대' 등 북한 알기 프로그램들이 북한애니메이션을 소개했으며,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투니버스 등 케이블TV들도 다수의 북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다.

또 중앙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각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와 북한영화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표방하던 '조선시네마' (www.dprkfilms.com) 등에 북한 애

니메이션 코너가 마련되어 네티즌들에게 상시 상영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현재까지 상영중인 사이트도 있다.

1.3. 북한 애니메이션의 남한 내 수입

2001년에는 북한 애니메이션의 남한 내 지적재산권 취득이 처음 허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책임있는 기관이 남한의 기업이나 단체에 유료로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해 전 북한의 예술영화 '불가사리'가 정식으로 첫 수입되어 극장 상영된 데 이어 이 같은 현상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부문까지 과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입수된 작품들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남한 내에서 상영되어 왔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민족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그 첫 문을 열었다. 두 단체는 2000년 5월 북한의 대남 사회문화교류 창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로부터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등 16편을 비롯하여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예술영화 '도라지꽃' 등 37편의 남한 내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북한 영화 수집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민족네트워크의 남북문화교류사업 의도가 합해진 결과였다. 사용권을 넘겨 받은 애니메이션 작품은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뱀을 타고 온 소년', '꿀꿀이가 본 온도계', '달나라 만리경', '다람이와 고슴도치', '렝리한 너구리', '소년장수',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음악회 날에 있는 소동', '물에 빠진 너구리', '나비와 수탉', '우쭈대던 장수굴', '어부총각과 검은룡', '토끼와 사자', '약쌈을 찾아 떠난 두 소녀', '착한 마음' 등이다.

이해 10월에는 주식회사 대신닷컴(대표 백성욱)에 의해 북한애니메이션이 정식 수입됐다. 당시 조선시네마 사이트(www.dprkfilms.com)를 운영하던 대신닷컴은 북한 조선출판물교류협회를 통해 7편의 애니메이션을 수입했다. 수입작품은 '은동이', '착한 토끼', '산삼고개', '오동나무잎', '동만이와 새돌이', '농부와 얼룩이', '양지동산의 꼬마선수들' 등 20-30분 분량의 아동영화이며, 수입 직후 조선시네마 사이트를 통해 상영되었다.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아태나 민화협 등 북한의 단체들은 이러한 지적재산권 일부에 대한 남한이양이 영화 교류 목적보다는 외화벌이 수단이 된다는 점을 더 높이산 것으로 여겨진다. 남북간의 여러 문화교류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그들의 태도를 미루어보면 이러한 유추가 어렵지 않다. 국제적 거래 관행을 외면하고 상식 밖의 거액을 요구하여 교류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예가 많았다. 물론 남한측도 돈벌이를 추구할 의도를 전혀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남북 쌍방이 문화교류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야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권장해야 할 대목이다. 다만 너무 경제적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교류가 수단으로 전락되는 모습이 당시 종종 눈에 띄었다는 점은 차후 개선해야 할 점이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북한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남북간의 공식 절차를 거쳐 남한 내에 입수되었다는 점은 교류의 초기단계 모습으로서 평가하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춘 사례가 될 것이다.

1.4. 남북 공동제작 추진

북한 애니메이션 작품의 남한 내 수입, 상영이 이루어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한 단계 더 진전된, 특정 애니메이션 작품의 공동제작이 남북간에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2001년에는 하나로통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야미가 북한측, 또는 북한측의 대리인과 만나 공동제작의 물꼬를 텃다. 나중에 야미는 도중 하차하는 비운을 겪지만 하나로통신은 풍부한 대북경험과 자금력을 앞세워 우여곡절 끝에 목적을 달성했다.

공동제작에 나선 회사들의 활동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1. 하나로텔레콤

'게으른 고양이 덩가' 제1탄 및 제2탄

하나로텔레콤(당시 사명은 하나로통신, 대표 신윤식)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산하의 삼천리총회사와 함께 3D 애니메이션 시리즈물 '게으른 고양이 덩가'와 '뽀롱

뽀롱 뽀로로'를 공동 제작했다. 이 중 2001년 말에 제작 완료한 '게으른 고양이 덩가'는 남북이 합작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첫 사례로 손꼽힌다.

'게으른 고양이 덩가'는 2001년 2월 하나로텔레콤과 삼천리총회사가 계약을 맺고 제작에 들어갔다. 총 33편의 연속물 가운데 17편을 삼천리총회사와 합작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기획단계인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과 음악, 음향, 더빙 등 마무리단계인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을 맡았으며, 삼천리총회사는 3D MAX, 소프트이미지 등 그래픽 도구를 이용한 메인 프로덕션(Main-production)을 맡았다.

애초에 하나로텔레콤은 19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이 작품 33편 전부의 메인 프로덕션을 삼천리총회사에 제작 의뢰했다. 그러나 삼천리총회사가 작업환경 미비를 이유로 공동제작을 수개월간 지연시키자 하나로텔레콤은 이 중 14편을 본래 계획과 달리 남한 내에서 제작하는 등 사업진행에 애로를 겪었다.

북한측에서 진행된 작업은 실제로는 삼천리총회사의 책임 아래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천리총회사는 남한과의 합작사업일 경우 업종을 막론하고 자주 등장하는 민경련 산하 회사로서 대남합작사업을 전문으로 맡는 일종의 종합상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회사가 아니다. 대신 4.26아동영화촬영소는 당시 북한 유일의 애니메이션 제작기관이었다.

편당 상영시간 1분 분량의 웹기반 풀(Full) 3D 스팟(Spot) 애니메이션인 이 작품은 모두 디지털 작업으로 제작되었다. 주인공인 아기 고양이 덩가가 움직이기 싫어하는 천성 때문에 겪는 에피소드를 엮은 코믹물로서 입체감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이다. 4-9세 어린이용이다.

북한과의 공동제작분 17편은 2001년 12월 초부터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하나넷(www.hananet.net)과 이 작품의 공식 웹사이트(www.mydinga.com)에서 선보였다.

하나로텔레콤은 2002년 5월 작품의 방영권 및 상품화권리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캐릭터 상품화 전문업체인 홍콩의 미디어링크사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지역에 이



<사진 3> 덩가의 캐릭터

작품의 방영권 및 캐릭터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 해 11월에는 일본 NHK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분야 자회사인 마이코(MICO)사와 이 작품의 일본 내 공식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2004년 10월 현재 모두 7개국에 수출했다.

이 작품은 2001년 대한민국 만화문화대상 캐릭터부문상을 수상했고, 2002년에는 10대 캐릭터에 선정돼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2004년 10월 '게으른 고양이 덩가' 제2탄의 15편 중 7편을 삼천리총회사와 공동 제작기로 합의했다. 하나

로텔레콤과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인 페이스가 공동 기획을 맡은 이 작품은 2005년 3월까지 제작 완료할 예정이다.

'뽀롱뽀롱 뽀로로'

하나로텔레콤(당시 사명은 하나로통신)은 2002년 8월 두 번째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인 TV용 3D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에 돌입했다. 이 작품 역시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작하여 이 해 12월경 제작을 완료했다.

작품은 호기심 많은 말쑥꾸러기 꼬마 펭귄 뽀로로가 얼음숲 나라의 동물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와 자연에 대해 탐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담았다. 뽀로로 외에도 너그럽고 순박한 백곰 포비, 잘난 척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여우 에디, 부끄럼 많은 소심한 비버 루피 등 다양한 동물 캐릭터가 등장한다. 작품은 편당5분짜리 총 52편으로 삼천리총회사는 이 중 22편을 제작했다. 기획과 마케팅은 주식회사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가 맡

고, 캐릭터 제작은 주식회사 오콘과 삼천리총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게으른 고양이 덩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측에서의 제작은 대남합작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삼천리총회사가 명목상 나섰을 뿐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측은 주로 라이트웨이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D를 구현했다.

작품은 2003년 상반기에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열린 카툰스 온 더 베이(Cartoons on the Bay)를 비롯한 프랑스 안시(Annecy) 페스티벌, 브라질 아니마 문디(Anima Mundi) 페스티벌, 서울 SICAF 등의 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경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주관한



<사진 4> 뽀로로의 캐릭터

2003 디지털콘텐츠 대상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2003년 대한민국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에서는 각각 국무총리상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EBS는 이 해 11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2편씩 이 작품을 방영했다. 또 프랑스 최대 방송사인 국영 FT1은 2004년부터 이 작품을 프랑스 전역에 방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12월 TF1과 프랑스 내 판권계약을 맺었다.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하나포스존(www.hanafos.com)도 2004년 2월부터 이 작품을 서비스하였다.

1.4.2. 야미

애니메이션 전문기업이 본격적으로 북한측과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사업을 추진한 예는 주식회사 야미(대표 조기철)가 처음이다. 야미보다 먼저 공동제작사업에 나선 하나로텔레콤은 애니메이션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 정보통신기업이다.

야미는 중국에서 북한측의 대외경제활동을 대행하는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범태)를 통해 합작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 11월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까지 받았다. 당시 북경에 소재지를 두고있던 범태는 북한 소속기관이 아닌, 친북계 인사가 운영하던 북한의 해외 방계조직이었다. 야미는 직접 북한측과 손잡지 못한 채 범태와 공동제작사업 계약을 맺었으며, 범태가 이 계약을 근거로 북한의 4.26아동영화촬영소, 또는 삼천리총회사와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고자 했다.

야미는 특정 작품에 대한기획 및 캐릭터 개발을 맡고, 북한측은 이 작품의 원화 및 동화, 채색작업을 담당하기로 했다. 야미는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4.26아동영화촬영소 애니메이터들을 대상으로 원화 및 동화테스트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결국북측 사업주체와 직접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야미가 공동 제작하려 했던 작품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1.4.3. 코아필름 서울

'왕후 심청'

주식회사 코아필름 서울(회장 벨슨신) 및 미국의 코아필름사(KOAA Films, Inc. 사장 벨슨 신)는 2001년 2월부터 북한의 4.26아동영화촬영소와 함께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을 공동 제작했다.

재미교포 애니메이션 감독 벨슨 신이 총감독을 맡은 '왕후 심청'은 모두 80분에 달하는

전체 제작분량 중 레이아웃을 비롯한 배경, 원화, 동화, 채색 등의 메인 프로덕션이 4.26아 동영화촬영소에서 2년 6개월에 걸쳐 제작되었다. 영화음악(OST) 또한 북한의 영화 및 방송음악단이 맡았다. 이 음악단의 성동환이 작곡하고 김윤미가 노래를 불렀다.

작품은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옮긴 것이다. 원전의 인물들을 개성 있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그렸으며,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의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풍습과 복식사, 궁중의 언어 등을 분석해 당대 문화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품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6년에 걸쳐 제작비 7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다.



<사진 5> '왕후 심청'의 한 장면

'왕후 심청' 공동제작은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남북합작사업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평가도 있다. 남한측 애니메이션계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측에서는 이 작품 제작을 남북합작사업으로 보지 않고 북한-미국 합작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작품 제작과 관련한 남북한 양측의 남북교류협력상의 법적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벨슨 신 감독이 운영하는 미국의 코아필름이 북한과 합작

하여 실제로는 북한-미국 간 협력사업의 형식을 빌어 진행되었다. 다만 넬슨 신 감독이 서울에도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인 에이컴 프로덕션과 코아필름 서울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회사를 통해 남북간의 간접 접촉방식으로 공작제작이 실행된 것은 분명하다. 황해도 출신의 넬슨 신은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핑크 팬더', '십승', '아서' 등 1천여 편 이상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감독했으며, 에미상을 8회나 수상한 바 있는 애니메이션계의 권위자다.

아직 정식 개봉되지 않았지만 '왕후 심청'은 2003년 프랑스의 안시 페스티벌에서 프로젝트 경쟁부문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서울 SICAF에서 장편부문 최고상인 그랑 프리를 수상했다.

1.5. 공동제작시스템 구축

1.5.1. 공동제작시스템의 필요성

지금까지 남북이 추진해 왔던 특정 작품 중심의 남북 공동제작은 일시적인 협력사업이었다. 해당 작품이 제작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되어 남북 양측의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웠다. 또 다른 작품을 제작하려면 남북 사업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고 양측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다시 받아야만 가능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 관계 유지에 따르는 불편을 줄이고 장기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몇몇 회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공동제작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들의 목표였다. 물론 공동제작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남북 양측 사업당사자간의 돈독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정치적 배경이 상존하는 남북간의 현실에서는 그 위험 부담을 사업자가 떠안아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 이 사업은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단점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은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경제적 이득도 취하고 보다 성숙된 문화교류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남한의 애니메이션업계는 고임금구조가 강화되어 노동력 의존이 심한 동화나 채색 같은 일부 일감을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저임금국가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외로부터 받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일감의 경우는 남한이 점차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중이어서 아예 남한 업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국 등지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남한 애니메이션업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더 강화시켜 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협력의 제약을 보완하고 일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길은 남북 사업당사자가 경제논리에 충실히 따른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루는 데서 그 첫걸음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업상의 모든 결정이 사업당사자간의 경제적 윈-윈(Win-win) 정신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전략 아래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정치적 사회적 악조건을 지닌 남북간의 고질적 사업배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남북간 공동제작시스템의 구축은 먼저 기술단지 건립 및 임가공방식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남한에서 자본과 일감을 제공하고, 북한이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여 작품의 일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1.5.2. 엔트랙

대북 IT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엔트랙(당시 사명은 엘사이버, 대표이사 임완근)은 2000년 하반기부터 북한측의 대남경제교류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를 통해 3D 애니메이션 및 소프트웨어 임가공사업을 추진했다.

이 해 10월 엔트랙은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합의를 체결하고, 평양에 IT기술센터 건립에 나섰다. 이 기술센터에 남한의 IT 및 애니메이션 회사들을 유치하여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의 고기술인력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엔트랙은 2002년 말까지 약 3천 명의 북한 IT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술센터에 입주하는 남한측 기업들에게 이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차로 이 해 11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3D동영상 전문인력 100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착수했다. 또 2차로 2001년 5월부터 7월말까지 애니메이션 전문가 150명, 이 해 9월부터 연말까지 멀티게임 전문가 250명 양성교육을 단기계획으로 추진했다.

마침내 엔트랙은 2001년 7월부터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한신코퍼레이션(대표이사 최신묵) 등 유치 대상 기업들을 수회에 걸쳐 평양에 초청하고, 계획한 바대로 이 해 말에 평양 락랑구역에 '고려정보기술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센터의 일부를 건립했다. 엔트랙은 이러한 사업 진행에 모두 85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3년 상반기 이후부터 남한 내 기업들의 호응 부족과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1.5.3. 민족네트워크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민족네트워크(대표이사 이정)는 2000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민경련과 애니메이션 합작사업을 논의해 왔다. 2001년 5월에는 민경련의 중재로 평양정보센터(총사장 최주식)와 중국 단동에 디지털영상센터를 공동 설립하기로 하는 등 애니메이션 합작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성숙되지 못한 북한 내부 여건으로 말미암아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민족네트워크는 한신코퍼레이션의 장편 애니메이션 '모디스'의 메인 프로덕션을 평양정보센터에 의뢰했으나 작품이 북한의 정치적 성향(친아랍)에 반하여 친이스라엘 정서에 기초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의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모디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모세의 일생을 다룬 종교물이었으나 북한측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물로 판단하여 제작을 거부했다.

민족네트워크는 2003년 10월 다시 평양정보센터와 손잡고 합작사업을 논의했다. 마침내 이듬해 6월 말에는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평양에 설치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양측은 2004년 3월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 계약에 따라 평양정보센터 내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만화영화창작단' 구성을 완료한 것이다.

이 스튜디오에는 북한 유일의 애니메이션 창작기관인 4.26아동영화촬영소 출신의 30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일하고 있다. 추후 제작일감의 증가에 맞춰 200명 이상 애니메이터를 증원시키겠다고 민족네트워크는 밝히고 있다. 스튜디오 설치에 따른 인력과 일체의 경비는 평양정보센터가 자체 부담했으며, 민족네트워크는 일감만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4.26아동영화촬영소 이외 기관에 다수의 애니메이터들을 배치하여 상설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를 설치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또 민족네트워크는 2004년 6월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 해 7월에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민족네트워크와 평양정보센터는 남북한 정부 양측의 최종 법적 승인을 모두 획득했다.

양측에 의한 이 스튜디오 운영사업은 3가지 점에서 과거의 합작사업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합작사업은 불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한 임가공방식의 합작사업이라는 점에서 과거 특정작품 제작 위주의 합작사업과 그 성격이 다르다. 이미 남북 간에는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으로 하나로텔레콤의 '게으른 고양이 덩가', '뽀롱뽀롱 뽀로로' 등 두 작품이 합작 계약방식에 의해 제작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 합작사업은 어떤 작품이든 수시로 북한에 제작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임가공방식 중심의 사업이다.

둘째, 이 합작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양측은 북한의 제작비용이 중국보다 크게 저렴하다는 점을 사업상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현재 남한의 애니메이션업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수주물량을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국가에 재하청하거나, 아예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그 동안의 남북합작사업들은 경제적 제작을 목적으로 삼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비용 절감을 등한히 한 측면이 있다. 이 합작사업의 경우에는 비용지불 조건도 한국의 거래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작품 검수 후 지불한다. 이 역시 주로 선불을 전제로 거래하는 기존의 남북간 거래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사진 6> 2004년 3월 평양정보센터와 민족네트워크의 관계자들이 동화 테스트 결과를 토론하고 있다.

셋째, 양측은 거래상의 상호독점을 계약상에 명문화하여 사업상의 보다 나은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로서 민족네트워크는 애니메이션분야에서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평양정보센터와 합작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민족네트워크와 합작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네트워크는 2004년 2월 말부터 애니메이션 제작공정별로 평양 스튜디오에서 일할 북한 애니메이터들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해 8월 말까지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원화와 동화, 컴퓨터 채색분야의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테스트 결과 제작방식상의 남북 차이와 전문용어 차이, 제작물의 전달 시간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나, "교육과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단계에 있다"고 민족네트워크는 설명했다.

민족네트워크는 이 해 9월부터 평양 스튜디오에서 남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원화와 동화, 컴퓨터 채색 일감이 주로 처리된다. 첫 작품으로 남한의 교육용 애니메이션 '치매노인 간호'가 제작되었다.

민족네트워크는 또 중국 단둥지역에 연락사무소를 2004년 하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이다. 평양 스튜디오측의 연출가와 민족네트워크측의 원화감독과 동화작가를 상주시켜 작품의 검수와 수정(Retake), 일감전달 업무를 진행한다. 추후 개성공단 운용이 활성화되면 이 사무소를 개성공단으로 옮길 계획이다.

2000년 10월에 설립된 민족네트워크는 대북문화교류사업에 치중해 왔다. 2000년 11월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내 영화인들의 최초 방북을 실현시킨 바 있다. 또 북한의 아태, 민화협 등과 손잡고 북한 문화재 DB, 북한 영화예술인 DB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는 애니메이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 북한 애니메이션계의 현황

2.1. 일반 현황

2.1.1. 역사

북한의 애니메이션계는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대표한다. 이 촬영소는 2004년 2개의 소규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북한 내외에 별도로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북한의 유일한 애니메이션 제작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북한 애니메이션의 역사는 4.26아동영화촬영소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 촬영소를 중심으로 한 북한 애니메이션계의 역사를 개괄한다.

북한은 1956년에 조선국립영화촬영소 내에 만화영화연구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첫 관심을 보였다. 당시의 활동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만화영화연구원이라는 명칭이 말해 주는 바처럼 실제 제작보다는 대체로 만화영화 제작을 위한 인력 양성과 기술 학습 등에 중점을 둔 연구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이 연구원을 만화영화창작단(혹은 만화영화제작단이라고 호칭한 문헌도 있다)으로 확대 개편했다. 내부의 제작시스템이 일부 정비되자 비로소 만화영화의 제작에 착수한 시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7년에는 조선국립영화촬영소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기록영화촬영소로 분리하면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내에 아동영화촬영소를 조직했다. 영화 창작의 전문화를 내세운 조치의 일환으로 만화영화창작단을 촬영소로 격상시킨 것이다. 북한은 4.26아동영화촬영소의 창립일을 1957년 9월 7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 아동영화촬영소를 이 날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내에 설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영화촬영소는 "해방 직후 설립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만화영화창작단을 독립시킨 것이다"라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1960년에는 북한 애니메이션의 효시로 손꼽히는 '신기한 복숭아'와 '금도끼와 쇠도끼'가

제작 완료되었다. 이들 작품에 대한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1971년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가 새로 설립되면서 아동영화촬영소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떠나 이 곳으로 흡수된다.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는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안에 있던 과학영화촬영소와 아동영화촬영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현재도 해외에서는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를 지칭하던 'SEK'(Science, Education, Korea 등 단어의 이니셜로 추정된다)이라는 이름으로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불리고 있고, 북한측도 해외에서 굳이 이 명칭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런 역사에서 연유한다.

당시 아동영화촬영소의 기본 임무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어린이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아동영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산하에는 아동영화창작단, 만화영화창작단, 지형(紙形)영화창작단, 과학영화창작단 등을 두었다. 아동영화창작단은 아동용 실사영화 제작을 담당했으며, 만화영화창작단은 셀 애니메이션 제작, 지형영화창작단은 절지(折紙)나 인형, 크레이(clay) 등 종이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과학영화창작단은 과학교육용 실사영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이 둘의 합성 영화 제작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말에는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가 다시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합병되어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로 개명되고, 여기에 있던 아동영화촬영소는 현재의 4.26아동영화촬영소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었다. 처음으로 아동영화촬영소가 독자적 조직체계를 갖춰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아동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의 아동영화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 촬영소는 설립 이후 1996년 말 독립될 때까지 TV시리즈물 '소년장수'를 비롯하여 '령리한 너구리', 장편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등 500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다. 또 1985년부터 해외 OEM 작품의 수주에도 눈길을 돌려 유럽국가들의 작품 제작에도 나섰다. 정확한 편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04년에는 4.26아동영화촬영소 외에 2개의 소규모 촬영소가 더 설치되었다. 이 해 6

월 말에 남한의 애니메이션 전문회사인 민족네트워크와 북한의 평양정보센터가 합작하여 평양정보센터 내에 애니메이터 30명 규모의 만화영화창작단이 설치되었다. 이 해 8월에는 중국 단둥에 중국측 회사와의 합작으로 애니메이터 20명 이내 규모의 인원이 삼지연창작사에 배치되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설치되었다. 이는 북한이 남한과 해외에서 일감을 수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비록 소규모에 불과하나 북한 애니메이션계에서 4.26아동영화촬영소의 독점기반이 경쟁기반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른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1.2. 주요작품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은 "1950년대 말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만화영화는 70년대에 이르러 자기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애니메이션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1970년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문화예술부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1970년대부터 애니메이션의 특징인 동식물과 사물 등의의인화와 우화적 요소등이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동식물이나 사물 등을 소재로 한 만화영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철군단'(1971년 작)과 2부작 '날개 달린룡마'(1983년 작)가 이같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파철 수집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파철군단'은 의인화 기법과 우화적 요소를 가미, 의미와 재미를 모두충족시켜 완성도 높게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의인화 기법과 우화적 요소를 애니메이션의 중요요소로 고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일성 주석이 들려준 동화를 소재로 제작했다는 '날개 달린룡마'는 어린이의 눈높이로 제작돼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용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애니메이션이 성인들을 주관객으로 한 예술영화를 닮아가던 당시의 경향을 이 작품이 극복해냈다고 북한은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김 주석이 들려준 동화를 영화화했다는 '나비와 수닭'(1977년 작), '두 장군 이야기'(1983년 작), 김 국방위원장이 들려준 동화를 영화화했다는 '호랑이를 이긴고슴도치

'(1984년 작), '도적을 쳐부신 소년'(1985년 작)을 비롯해 '다람이와 고슴도치'(1977년부터 제작), '소년장수'(1982년부터 제작), '령리한 너구리'(1987년부터 제작) 등이 북한 애니메이션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은 이들 작품에 대해 "지덕체 교양 내용을 진실한 동화적 영화형상으로 담아냄으로써 높은사상예술적 품격을 갖춰 어린이들의 참다운 길동무로, 아동영화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 작품 중 '소년장수', '령리한 너구리' 등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특히 김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이 들려준 동화를 영화화했다는 '소년장수'(50부작)는 방영될 때마다 '소년장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계속편을 빨리 방영해 달라'는 등 시청자들의 성화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를 시대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아들의 역정을 그린 작품이다. 용감한 소년 쇠매가 적의 음모를 깨뜨리며 훌륭한 무사로 자란다는 줄거리로 2003년 10월 현재 24부가 나왔다.

'령리한 너구리'는 너구리가 주인공으로 등장, 다른 동물들과의 갈등구조를 통해 선과 악을 대비시키는 권선징악적 내용이다. 너구리가 친구들인 곰, 고양이 등과 함께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용기와 지혜를 일깨운다.

'다람이와 고슴도치'는 다람쥐와 고슴도치가 족제비에 맞서 꽃동산 마을의 평화를 지켜나간다는 내용이다. 최근 제작된 이 작품의 연속편들은 80년대의 줄거리와 완전히 구별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북한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최근작들은 현대식 군사장비와 최신행 무기로 민첩하게 비밀임무를 수행하는 꽃동산 정찰병들과 적들 사이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전개된다.

'도적을 쳐부신 소년'은 1987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제1회 평양비동맹국제아동영화축전에서 만화영화부문 금상을 차지했다.

또 2003년 10월 25일자 북한의 문학신문은 '소년장수'와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선군사상'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으로 꼽았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이 신문은 "문학예술을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선군문학예술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아동영화도 어린이들을 선군사상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아동영화에도 김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신문은 '다람이와 고슴도치', '소년장수'를 예로 들면서 "두 아동영화는 당의 자위적 군사노선의 정당성과 선군정치의 필요성을 동화적 화폭으로 보여준 성과작"이라고 평했다.

북한이 아동영화의 오락성과 예술성보다는 정치적인 교양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 예술로서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 홍보성 내용이나 정치적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교훈적인 내용의 전래동화나 과학 소재를 다룬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 7> '령리한 너구리'의 주인공 너구리 캐릭터



<사진 8> '소년장수'의 주인공 쇠매 캐릭터

4.26 아동영화촬영소가 2000년 이후 제작하거나 제작 중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2000년에는 '토끼형제와 승냥이', '오누이와 나무꾼', '꿀꿀이가 만든 연' 등이 제작되었다. 이들 작품은 지형영화이거나 인형영화이다. 이 영화들은 "어린이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인식 교양적 의의가 크다"고 자체 평가된다.

2002년에는 '환상 속의 세 동무'를 비롯한 '다람이와 고슴도치' 제22부 '보석 목걸이를 찾아서', '신비한 나라' 제2부 '보금자리는 어디일까', 제3부 '황새박사가 보낸 초청장', '방

울소리' 제5부 '방재주', '두번째 경기', '작한 동무' 등 어린이들의 도덕교양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다수 제작되었다.

이 중 '환상 속의 세 동무'는 촬영소가 8개월에 걸쳐 제작한 20분짜리 컷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번개를 길들여 전기로 활용하려는 세 명의 어린이 주인공들의 탐구활동을 그린 이 영화는 작품의 주제와 내용 설정 등에서 종전의 애니메이션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 줬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영화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북한언론들은 전했다. '방울소리' 제5부 '방재주'는 어린이들이 버스를 탈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주제로 다룬 내용이며, '두 번째 경기'는 무슨 일에서나 부단히 노력해야 성과를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2003년에는 '잃어버린 1분', '전화소동', '파란 샘물'(1, 2, 3부), '다람이와 고슴도치' 제24부 '위험을 맞받아', '토끼 형제와 승냥이'(제4부), '풍년열매 이야기' 등이 제작되었다. 이 중 '파란 샘물'은 김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이 들려주었다는 동화를 영화로 옮긴 것이다.

촬영소는 2004년 현재 여러 작품들을 제작 중에 있다. 이 해 7월 '받지 못한 꽃다발', '꿀꿀이가 마신 보약'이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방울소리' 연속편인 '방울을 떼 송아지', '북남이와 점수들', '함정에 빠진 송아지'가 제작 중에 있었다. 또 이 해 9월 '령리한 너구리' 연속물인 제53부 '힘겨루기 날에 있는 일'을 비롯해 '다시 날린 전과', '너구리가 가져온 불', '너구리가 만든 전지', '너구리가 올린 돛'이 제작 중이었고, '다람이와 고슴도치' 제26-29부도 제작 중이었다. 이밖에도 교육용 애니메이션 '흥미 있는 화학여행'이 대본 마무리 단계 있었고, '개미와 매미', '꿀 젖샘', '골치거리를 팔았지만', '우리 집 오뚜기', '초동이와 아버지', '샘돌이', '돌려 맞춘 시계바늘' 등이 초고집필 단계에 있었다.

'받지 못한 꽃다발'은 주인공 꿀꿀이가 자연학과 경연에 나가 혼자 1등을 해 꽃다발을 받았다는 욕심에 책을 독차지하다가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아 창피를 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꿀꿀이가 마신 보약'은 씨름선수인 꿀꿀이가 바른 식사예법을 지키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바람에 앓아 눕게 되어 결국 경기에서도 지고 친구들과한테도 망신당한다는 줄거리를 가졌다.

촬영소는 2004년 2차례에 걸쳐 영화대본 현상응모를 실시해 수준급의 작품 40여 편을 당선작으로 냈다고 전한다. 이 중 '다시 날린 전파'가 '령리한 너구리' 연속편으로 제작되고 있고, '송아지의 노란 방물'이 '방울소리' 연속편으로 제작될 방침이다.

2004년에 신설된 평양정보센터의 만화영화창작단이나 삼지연창작사는 현재 남한이나 해외 수주 작품제작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작품이 아직은 없다.

2.1.3. 주요 제작진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진으로는 4.26아동영화촬영소의 손종권, 김용권, 김종철, 김택전, 김명희 등이 유명하다. 손종권은 '소년장수', '령리한 너구리',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등을 연출하여 북한 애니메이션계의 '대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김용권은 탁월한 이야기 구성능력을 인정 받고 있으며, 손종권과 한 팀을 이뤄 '소년장수', '령리한 너구리'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김택전과 김종철은 '소년장수' 등에서 미술을 담당했다. 이 중 김택전은 2004년 삼지연창작사로 이적했다. 김명희는 '소년장수', '령리한 너구리', '도적을 쳐부신 소년' 등의 음악을 담당했다.

2001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은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층에 의해 4.26아동영화촬영소의 제작활동이 주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촬영소의 인적 구성에 대해 "유능한 창작가, 예술인들로 구성된 창조집단의 평균연령이 30세 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중심에는 30대의 김철수 부총장이 있다.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지 불과 7년 만에 제작기술분야를 책임진 부총장직에 올랐다. 현장기사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첫발을 내디딘 뒤 최근 컴퓨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을 개발하고, 촬영설비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를 설계, 제작하는 등 복잡한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신문은 연출가 리인철을 비롯해 미술가 홍종철, 성우 송영숙, 신인작가 김화성 등도 두각을 나타내는 20-30대 인물로 꼽았다.

연출가 리인철은 '영화 창작의 사령관'으로 불릴 정도로 애니메이션계를 이끌고 갈 차세대 연출가로 평가 받고 있다. 촬영소에 입사한지 1년도 채 안된 1994년 인형극 '알라공'으로 인정을 받은 그는 2000년 10월 노동당 창당 55주년을 기해 개봉된 '거부기(거북이)와 별새'를 비롯해 15편의 인형 및 지형영화를 연출했다. 그의 작품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로부터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한다.

미술가 홍종철은 대학 졸업 후 10여 년간 한 길을 걸어온 베테랑이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데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해외로부터 수주한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해 개성적인 동물과 인물들을 창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30대 주부인 화술배우(성우) 송영숙은 1991년부터 아동영화 성우로 활동한다. 북한의 대표적 애니메이션인 '령리한 너구리', '다람이와 고슴도치' 등 150여 편의 제작에 참가, 인상적인 목소리 연기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된 신인 시나리오작가 김화성도 경력에 걸맞지 않게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기한 수정구슬', '사람과 재물', '다람이와 고슴도치' 등 20여 편의 애니메이션 대본을 창작했다.

2.1.4. 해외 수주 및 작품 판매 활동

북한은 1985년부터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나서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주로 유럽국가로부터 2D애니메이션을 수주해 원화 및 동화 작화와 채색작업 등 메인 프로덕션을 제작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작한 해외 작품으로는 이탈리아 몬도사의 '사자왕 씬바', '포카혼타스', '검은 해적선' 등과 프랑스 꼬리마송사의 '레미제라블', '피프와 헤라클레스의 모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 '카스토르 영감의 이야기', 일본의 '은하 영웅전설' 등이 있다.

2000년에는 프랑스의 '고양이 빌리', '토르갈', 스페인의 '나이고타', '바다탐험', 이탈리아

아의 '스파게티가족', '토로미로의 아이', '산도칸' 등 수십 편의 TV시리즈물과 이탈리아의 '공룡왕자' 등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미국 코아 필름사의 장편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을 제작했다.

언제 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외에도 해외에서 수주, 제작한 작품으로는 이탈리아 몬도사의 TV시리즈물인 '사막의 왕자', '잠자는 숲의 미인', '모이칸족의 마지막 사랑'을 비롯하여 프랑스 꼬리마송사의 장편애니메이션 '베까신', '비셀스트로코프', TV시리즈물 '꼬르토 말테즈', '닐강의 공주', '프리당스 뽀뽀', '또르미노의 아이들', '알렉스', 'SOS 비상구조대', '간다아르', '툼툼터', '쉐르자르 공주', '엄지동자', '빠시 플르르' 등이 있다.

또 북한은 러시아, 일본 등과도 합작사업을 수행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8월 5일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애니메이션부문의 제작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방송은 러시아의 애니메이션 관계 회사인 '매사 미디어' 대표들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앞서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애니메이션부문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매사 미디어는 당시 몇 해째 북한과 만화영화 제작을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의 진전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4.26 아동영화촬영소의 김철수 부총장이 인솔하는 애니메이션기술대표단이 2001년 7월 방일,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의 교류 협력을 모색한 사실도 재일본조선총련합회(총련)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보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해외로부터의 하청 작품 외에도 북한은 '령리한 너구리', '소년장수',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등 자체 기획 제작 작품들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판매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의 비디오 판매는 목란비디오가 맡고, 영화필름으로서의 판매는 조선영화수출입사가 주로 맡고 있다. 다만 남한에 대한 판매는 별도의 대남교류창구인 민화협 등이 맡아서 한다.

이러한 해외 수주 및 판매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표창 소식도 들린다.

2001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4.26아동영화촬영소 종사원들에게 감사문을 전달했다. 이 날 김준옥 연출가에게는 김일성상을 수여하고, 김철진 총장과 김태홍 단장에게는 김일성 주석 이름이 적힌 시계를 전달했다. 최만선 부총장을 비롯한 4명에게는 김 국방위원장의 표창장을, 손종권 연출가에게는 인민예술가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 언론들은 촬영소 관계자들이 "세계 만화영화계에 적극 진출하여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 만화영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식(북한식) 예술영화의 위력을 과시했다"고 표창 배경을 설명했다.

2003년 2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공동 명의로 4.26아동영화촬영소를 경제실적 우수기관으로 표창했다. 2002년도에 우수한 경제실적을 기록한 202개 공장관과 기관에 '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하면서, 여기에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수풍발전소, 3월17일발전소, 남강발전소, 제남탄광, 인포탄광, 량강도 지질조사측량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남포항, 개성인삼가공공장, 내각 대외봉사국 비품제작소 등과 함께 촬영소가 포함된 것이다.

2.1.5. 전문인력 양성

북한에서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고등중학교(중고등학교)의 미술소조(동아리), 미술대학, 4.26아동영화촬영소의 기술학교 순의 교육과정을 거친다고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은 밝히고 있다.

애니메이터 지원자들은 고등중학교 시절부터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미술역량을 기른 뒤 미술대학에서 가서 아동미술을 전공한다. 평양미술대학의 경우는 출판학부에서 아동미술을 가르친다. 이 대학은 6년제로 전반 3년은 전문학부이고, 후반 3년은 전공학부이다. 아동미술은 후반 전공학부에서 공부한다. 대학 졸업 후 국가는 졸업생들의 적성과 실력, 본인의 희망을 감안하여 애니메이터가 될 사람들을 4.26아동영화촬영소에 배치한다. 때로는 대학의 3년제 전문학부만 마친 사람들을 4.26아동영화촬영소에 배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4.26아동영화촬영소에는 기술학교가 부속되어 있다. 촬영소는 신입 애니메이터들을 이 기술학교에 입교시켜 3년간 실무교육을 시킨 뒤 제작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 때 강사는 촬영소의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맡으며, 자체적으로 축적된 경험을 집성한 교재를 사용한다.

직업학교를 마친 애니메이터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된 실력과 자신의 취향에 의해서 각 공정별 제작부문에 배치된다. 그러나 이 때 정해진 제작부문은 정년이 될 때까지 거의 변동되지 않는다. 동화미술가는 평생 동화를 제작하며, 원화미술가는 평생 원화를 제작하는 식이다. 남한처럼 동화를 제작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원화 제작으로 이전해 가는 인력양성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시스템은 각자의 실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전문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번 잘못 판단하고 접어든 길을 평생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4.26아동영화촬영소는 애니메이터들에게 외국 애니메이션계의 추세를 파악하고 선진 제작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전종업원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에 미국 등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을 촬영소 내에서 상영하게 하고, 그 소감을 토의토록 한다. 그러나 "이런 기회만으로 외국 물정을 익히는 데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은 토로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애니메이션 제작에 컴퓨터 활용이 도입되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인력들이 4.26아동영화촬영소에 진출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2.1.6. 영화음악

영화음악은 그 대부분을 '영화 및 방송음악단'(단장 고수영)에서 맡는다. 1958년 설립된 이 음악단은 북한 내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영화음악 전문 연주단이다. 평양국제영화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관현악단과 경음악단, 합창단으로 구성돼 있다. 녹음실 등 부속시설도 갖추고 있다. 대외 연주보다는 영화 및 방송용 연주 녹음이 주업무이다. 소속 인원은연주자가 120명, 합창단원이 80여명이다.

이 음악단은 창립 이후 46년 동안 예술영화를 비롯한 과학 및 아동영화, 기록영화, TV문예작품, 방송음악 등 무려 3만 4천여 곡을 창작했다. 산하 경음악단은 최신식악기를 갖추고 지난 30년간 1만5천여 회 공연을 했다. 녹음실은 현대적인 음향녹음설비를 갖추고 영화나 방송음악을 제작한다. 연주실은 본연주실을 둘러싸고 서로 음향이 간섭 받지 않도록 10여 개의 작은 방들이 배치돼 주선율을 언제든지 바꾸어 선택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이 음악단에는 영화와 텔레비전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최삼숙, 왕선화, 김정화, 전우봉, 김승연, 장은애, 황민우, 리경훈, 김윤미, 리새별 등 북한의 '명가수'가 많이 포진해 있다.

평양시 선교구역에 있는 룡곡중학교 또한 아동영화음악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다고 북한의 언론들은 전했다. 이 학교 아동영화음악반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음악 수재들을 육성,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했으며, 1970년대 초 영화와 방송음악, 아동영화음악에 처음 출연한 이래 2003년 7월 현재 총 2천5백 여 곡의 아동음악을 창작해 아동영화에 활용했다고 한다.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소년장수'와 '다람이와 고슴도치', '령리한 너구리', '나비와 수탉', '산삼꽃' 등의 주제가도 이 학교 음악반원들이 불렀다. 음악반원은 모두 100여 명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 학교 학생들의 노래를 듣고 '최상의 수준'이라고 극찬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감사를 표명하고 피아노, 손풍금 등의 악기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영화음악 전반에 대해 남한에서는 곡의 장르가 다양하지 못하고, 템포가 느리며, 현대적 감각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2.2. 제작기술 수준

2.2.1. 일반적 평가

북한 애니메이션은 제작기술 면에서 외부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의

언론들은 자주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수많은 외국 작품을 주문 제작 받아 외국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남한 언론들도 이를 받아서 "4.26아동영화촬영소는 외국 영화사의 제작 주문을 받을 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으로 보도해 왔다. 앞서 밝힌 바처럼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북한 애니메이션계를 대표하는 까닭에 이 촬영소에 대한 평가는 곧 북한 애니메이션계의 평가와 같다. 이 촬영소는 언론들의 보도처럼 1985년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으로부터 하청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또 다른 평가는 남북한 언론들의 평가와 크게 엇갈린다. 주로 북한애니메이션을 보다 밀도 있게 연구하거나 애니메이터들이 그린 작품들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가 흘러나온다. 이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폐쇄사회의 특성상 견문이 적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물이나 현상을 그려야 하는 데에서 큰 제약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출이 구태의연하여 시대감각에 뒤떨어진다고 진단한다. 북한이 자랑하는 작품인 '소년장수'나 '령리한 너구리'의 최신작에 대해서도 남한의 작품수준에 비해 20년, 많게는 30년 정도 뒤떨어졌다고 이들은 혹평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반된 견해 중에서 비교적 진실에 가까운 평가는 언론들의 보도보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일부 현상을 전부로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웬만한 북한 애니메이션 전문가라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호감을 반영한 내수용 작품 1백 여 편 이상을 감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폐쇄사회의 저편에서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북한애니메이션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충실히 귀동냥한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접근 가능한 북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는 그만큼 적은 것이 사실이다. 남한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북한 애니메이션 수준을 알아보는 우 또한 전문가들의 평가속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엇갈리는 평가를 감안하여 일단 여기서는 북한의 2D 애니메이션 작품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기술적 특징만을 나열한다.

첫째, 북한의 애니메이션들은 1초당 24프레임을 사용하는 풀 애니메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1초당 12프레임이나 8프레임을 쓰는 한국이나 일본 작품보다 영상이 부드럽다. 이러

한 제작기술은 미국이나 유럽 작품 제작에 비교적 적합해 북한이 유럽 국가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데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만화체 작품이 주종을 이룬다. 만화체 애니메이션은 삽화체에 비해서는 제작기술이 단순하고 제작비가 저렴하다. '령리한 너구리' 등이 만화체에 해당한다. '호동왕자와 락낭공주'같이 삽화체 작품도 일부 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적으로 크게 열세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은 삽화체를 주로 사용하는 일본 작품 제작에는 어울리지 않는 흠이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은하영웅전설'을 북한에 의뢰했다가 그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작품처럼 사실 그대로의 움직임을 재현해내는 사실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70%의 사실성과 30%의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사회주의 예술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실적인 액션을 중시하여 세부동작까지도 정확히 보여 주려 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느낌을 준다는 평가도 있다.

2.2.2. 메인 프로덕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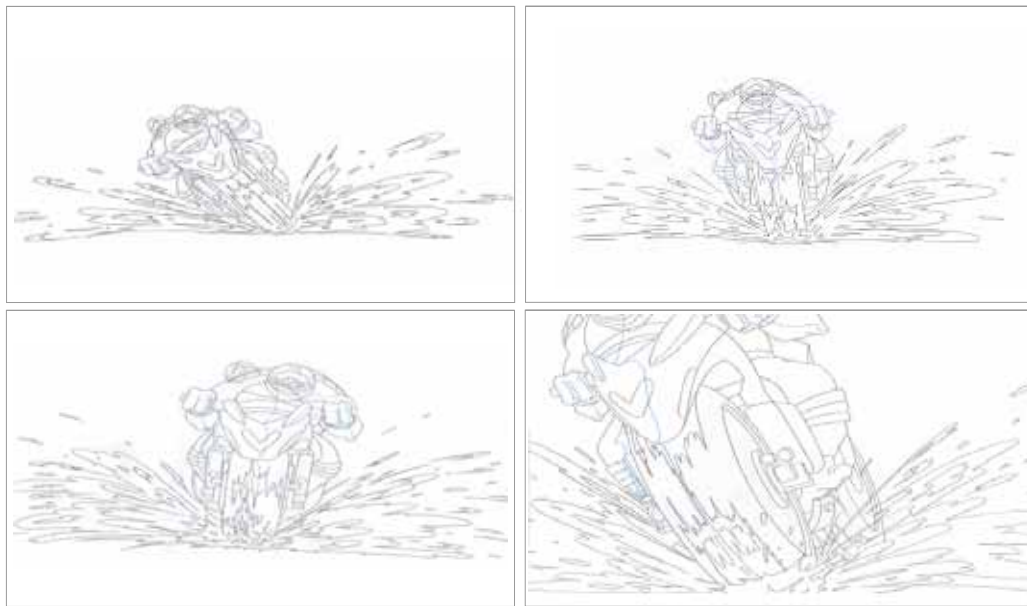
북한의 제작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북한에서 활동 중인 애니메이터들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간 관계로서는 이러한 목적을 노골화한 직접적인 테스트 시도는 아예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북한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테스트를 실시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북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이 메인 프로덕션 부분에서 실시한 테스트나 실제 제작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을 차용하여 북한의 제작기술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민족네트워크는 2004년2월부터 10월까지 평양정보센터의 만화영화창작단에 소속된 애니메이터들 대상으로 2D애니메이션의 원화 및 동화 작화, 채색 등 메인 프로덕션의 대부분의 공정에 걸쳐 테스트를 실시했다. 또 필자 등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여러 경로를 통해 4.26아동영화촬영소 출신 애니메이터들의 원화 및 동화 작화 결과물을 입수했다.

(간접적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결과물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밝히지 않는다.) 최소 30명 이상의 북한 애니메이터들이 알게 모르게 이 메인 프로덕션 테스트에 참여한 셈이 된다.

여기서는 민족네트워크의 테스트 결과를 중심에 두고 간접적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작화물들을 참고하여 북한의 메인 프로덕션 제작기술 수준을 엿보고자 한다. 메인 프로덕션의 여러 테스트 중에서 원화 작화물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원화 작화가 메인 프로덕션 중 최고난도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그 결과가 제작기술 파악에 가장 근사치의 값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여기에 기술한 내용은 북한 제작기술 수준의 일부분을 대변할 뿐 전부, 혹은 평균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족네트워크의 원화 테스트에 참여한 평양정보센터 만화영화창작단에 소속된 원화맨들은 원화 작화 경력 6-10년으로 최근까지 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해외 합작품을 주로 제작하던 사람들이다. 민족네트워크는 서울 지원애니메이션(대표 박치원)의 협조를 통해 미국 4키즈 엔터테인먼트사(4 Kids Entertainment Co.)가 제작 중인 TV시리즈물 '닌자



<사진 9> 북한 원화맨들이 그린 '닌자 거북이' 원화들

거북이' 제72화의 장면(Scene)번호 212A 등 20컷 분량에 대한 원화를 이들에게 직접 작화 하도록 했다. 이 작품의 콘티와 모델집, 색지정표, 타임시트, 배경, 레이아웃 등 원화 제작에 필요한 모든 구비요소들이 사전에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주어진 작화 기간은 약 1주일이었다. 이 테스트는 서울에서 해외의 OEM용 원화를 하청자에게 발주하는 일반적인 조건과 견주어 볼 때 전적으로 동일한 여건에서 수행되었다.

북한 애니메이터들이 작화한 원화는 서울에서 경력 20-25년 사이에 있는 2명의 원화감독과 1명의 화이널 체커(Final Checker)에 의해 정밀하게 평가되었다. 원화감독은 김성겸(민족네트워크 원화감독), 김송환(프리랜서)이며, 화이널 체커는 조국상(민족네트워크 디지털부장)이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 등에 대한 작화 능력은 비교적 좋으나, 남한 원화맨들의 작화 수준과 비교하면 그 실력이 남한의 중간그룹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동작을 연출하는 속도에 문제가 많았다. 동작이 느리다가 빠를 수도 있고 빠르다가 느릴 수도 있는데 일률적인 속도로 동작시킨 점이 큰 흠이다. 연출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전체적인 동작이 너무 느리다.

셋째, 원화 작화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화지 상의 지시 표기법나 타임시트 작성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 원화로 동화를 그린다면 동화맨들이 어떻게 작업할지 알 수 없거나 그 의미 파악이 힘들도록 기술되었다. 컷번호, 타이밍차트, 타임시트 상의 셀번호 쓰는 법 등이 남한에서 표현하는 형식과 달랐다.

넷째, 타임시트를 잘 해독하지 못하다는 듯했다. 무조건 타임시트에 지시된 대로 따라야 하는데 시트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시트에 의존하는 제작에서 종종 오류가 발생했다.

다섯째, 경제적 연출법을 등한히 하거나 아예 몰랐다. 어떤 경우(오토바이가 흔들거리다

가 넘어지는 장면 등) 원화를 너무 많이 그렸다. 원화를 많이 그리면 동화가 늘어나고 동화가 늘어나면 제작비가 증가한다. 또 별셀로 그리지 않아야 할 셀을 별셀로 그렸다. 이 역시 원화와 동화 매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다시 밝히지만 이런 현상이 북한 애니메이터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할 길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애니메이터들의 일부 현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해외 합작을 위주로 작업한 전문가들의 수준이 이렇다는 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애니메이터들의 실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평가자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남북간 제작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재로서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남한에서는 해외 OEM 일을 하는 애니메이터가 시트 상의 지시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자들은 북한 애니메이터들이 유럽국가들의 OEM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임시트에 의한 작업이 아니라, 콘티에 의한 작업 위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애니메이터들이 모두 4.26아동영화촬영소라는 동일 기관에 근무하다 보니 시트 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아 규칙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남한 등 다른 나라처럼 제작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자들은 유추했다.

그러나 평양정보센터의 만화영화창작단측은 4.26아동영화촬영소가 해외 작품을 제작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콘티뿐만 아니라 타임시트도 함께 제공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창작단측은 현재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시행하는 해외 작품의 수주 제작방식은 발주자로부터 시나리오만 받아 제작하는 방식과 발주자로부터 콘티, 모델, 레이아웃, 타임시트를 받아 제작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타임시트 등을 받아 제작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고 평양정보센터측은 설명했다.

실상이 어느 경우든 평가자들은 원화의 테스트 결과만을 보면 남한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로 시트에 의한 OEM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남북합작사업에 이들을 투입할 때 반드시 사전교육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첫째, 시트나 작화지

상의 지시 및 표기규칙, 둘째, 연출기법, 셋째, 경제적인 원화 작화 요령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자들은 콘티에 의한 메인 프로덕션 제작시에는 교육이 없이도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캐릭터 등에 대한 작화 실력이 좋고, 동작이 실제처럼 자연스럽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여러 국가나 여러 스튜디오에서 분산 제작하는 TV시리즈물 보다는 1개 스튜디오에서 감당하기 좋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까지 '왕후 심청'을 북한과 공동 제작한 한국측 관계자는 "북한의 작화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나 표현 방식 등이 다르고 세련미가 없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2.3. 컴퓨터 창작

북한이 애니메이션에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90년대 후반기로 추정된다. 4.26아동영화촬영소가 1998년에 최초로 아동영화 '셋째의 착한 마음'의 일부 장면을 컴퓨터를 이용해 3차원 입체영화로 제작했다고 발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4.26아동영화촬영소는 2000년부터 독자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초고 동화 프로그램'은 채색, 촬영 과정을 컴퓨터화한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애니메이터들이 그린 그림을 스캐너로 입력 받는 촬영단계, 입력된 화상을 연출대본에 따라 배열해 촬영표를 만드는 편집단계, 촬영표에 기초해 움직이는 화면을 만드는 동화상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 촬영소에서는 배경 및 동화의 채색, 특수효과를 포함한 편집, 화면합성 등도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 북한 언론에 이처럼 보도된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초고 동화 프로그램'보다 진전되어 채색과 특수효과 연출, 촬영까지 가능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애니메이터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러한 2D제작용 소프트웨어로는 상업적으로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상용되는 PEGS나 TOONZ, US애니

메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US애니메이션을 판매하는 서울의 주식회사 CS M&C 기술은 북한에서 메인 프로덕션이 제작된 이탈리아 작품 '포카혼타스'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2002년 6월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환상 속의 세 동무'가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었다. 이 작품은 4.26아동영화촬영소에 의해 8개월에 걸쳐 제작된 20분짜리 첫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은 "중전의 만화영화 테두리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영화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북한 언론은 전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의 도입은 초기에는 촬영소의 컴퓨터창작단 3D화상처리실에서 주도했으나, 2002년하반기에는 컴퓨터 그래픽 작품만을 전담하는 컴퓨터3D창작단을 설립, 130여 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D부문의 소프트웨어로는 3D MAX를 주로 활용한다고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은 설명했다.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북한과 3D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와 '뽕뽕뽕 뽕로로'를 함께 제작했던 남한측 관계자는 북한의 3D기술 활용 수준에 대해서 매우 높다고 평가했으며, '뽕뽕뽕 뽕로로'의 경우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이 라이트웨이브라는 3D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2.3. 애니메이션 제작사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국내에 2개소, 해외에 1개소가 있다. 국내에는 평양에 4.26아동영화촬영소와 평양정보센터 만화영화창작단이 있고, 해외에는 중국 단동에 삼지연창작사가 있다. 만화영화창작단과 삼지연창작사는 독자적인 제작기관은 아니고, 2004년에 소규모 스튜디오를 설치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나서서 2004년 8월에 심양에 10명 이내의 애니메이터들을 파견하여 스튜디오 운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3.1. 4.26아동영화촬영소

4.26아동영화촬영소(총장 김철진)는 1957년 9월 7일 설립되었다. 앞서 밝힌 바처럼 이 촬영소는 2004년 이전까지는 북한 유일의 애니메이션 제작기관이었으며, 북한 내 애니메이션계를 독자적으로 이끌어왔다. 북한의 애니메이션 관련된 모든 활동과 북한 내에서 제작된 모든 애니메이션 작품은 모두 이 촬영소가 주도한 것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대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영화촬영소와 마찬가지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10> 평양 중구역 대동강변에 자리한 4.26아동영화촬영소. 뒤의 흰색 빌딩이 촬영소다.

현재 4.26아동영화촬영소(총장 김철진)에는 모두 13개의창작단이 있다. 1개 창작단의 규모는50-70명 선이다. 이 중 2개 창작단은 국내물을 만드는 '국내창작단'이며, 1개 창작단은 컴퓨터 미술을 담당하는 '컴퓨터3D창작단', 나머지 10개 창작단은 해외 하청일을 하

는 '합작창작단'이다. 종업원수는 행정 및 관리인원을 포함하여 1천 2백여 명이다.

컴퓨터3D창작단은 90년대 말에 생긴 컴퓨터창작단을 발전시킨 조직으로 2002년 하반기에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130여 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전담한다.

촬영소 산하에는 해외 일감 수주를 주도하는 'Korea SEK Company'와 애니메이터들을 양성하는 3년제 기술학교가 있다. Korea SEK Company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4.26아동영화촬영소가 가중되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업계에 밝은 소식통은 "4.26아동영화촬영소가 2002년 7월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2004년 현재 연간 500만 달러의 수출 목표액을 감당해야 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전하면서 "최근에는 촬영소가 목표액을 달성에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촬영소 종사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거나 촬영소가 직접 해외에 일감 수주 및 제작을 전담하는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일부 종사원들이 2004년에 중국 단둥에 있는 삼지연창작사로 전직을 했는가 하면, 같은 시기에 촬영소의 일부 애니메이터들이 중국 심양에 나와 스튜디오 설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촬영소가 직접 남한과 합작사업에 나서는 것은 정책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북한의 대남 사업정책에 정통한 사람들은 "촬영소가 당의 선전선동부에 속해 있어 대남사업을 주도하는 당의 통일전선부보다 상위부서 소속이므로 통일전선부가 촬영소를 대남사업에 나서게 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다수의 남한 기업들이 촬영소를 대상으로 한 합작사업을 민경련에 요구했으나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

2.3.2. 평양정보센터 만화영화창작단

만화영화창작단은 평양시인민위원회 산하의 IT연구개발기관인 평양정보센터(총사장 최주식) 내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다. 남한의 민족네트워크와 평양정보센터 간의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사업 계약에 따라 2004년 6월 말에 설치되었다. 4.26아동영화촬영소에 이어 북한에서 2번째로 탄생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다.



<사진 11> 만화영화창작단이 설치된 평양정보센터

현재 창작단에는 모두 30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일하고 있다. 전원 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종사하던 애니메이터들로서 연출가 2명을 비롯하여 4-7년 경력의 원화맨 10명, 7-10년 경력의 동화맨 12명, 컴퓨터 채색 담당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감의 증가에 따라 애니메이터들의 증원이 가능하다.

민족네트워크에서 수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일감을 전담 처리한다. 어떤 작품이든 중국보다 저렴한 제작비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남북한의 관계를 해치는 정치색이 짙은 작품은 제작하지 않는다. 제작 범위는 현재 원화 및 동화 작화, 디지털 채색 등 메인 프로덕션에 국한한다. 2004년 9월부터 민족네트워크가 발주한 용역물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감의 전달경로는 서울에서 중국 심양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하며, 심양에서 단둥까지는 당일 택배서비스를, 단둥-신의주-평양간은 평양정보센터측이 별도개설한 수송편을 활용한다. 만화영화창작단이 제작한 결과물의 전달 경로는 일감 전달경로의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서울-평양간 최단 소요시일은 2일로 남한의 하청일을 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1일이 긴 편이다. 채색 용역의 경우는 서울-평양간을 중국을 경유한 인터넷을 활용하므로 남한에서의 작업시간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

평양정보센터와 민족네트워크는 용역 전달시간이 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상반기에 개성공단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연락사무소에는 평양정보센터측의 연출가와 민족네트워크측의 원화감독 및 동화작감이 파견되어 사전검수와 수정(Retake), 용역 전달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1986년에 설립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에서는 조선컴퓨터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꼽히는 IT연구개발기관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경흥동에 있다. 200명의 연구사를 포함 모두 5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남한의 하나비즈와 함께 중국 단둥에 최초의 남북합작 IT기업인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 운영 중이다.

2.3.3. 삼지연창작사

삼지연창작사(단장 김경호)는 2004년 8월 중국 단둥에 중국기업과의 합작형식으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꾸렸다. 현재 모두 15명의 애니메이터들이 평양에서 파견되어 중국 애니메이션업계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파견 인원 전원이 최근까지 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종사했던 인물들이다. 현재는 이 촬영소에서 완전히 이직한 상태이다. 대부분이 원화맨이다.

삼지연창작사는 중국을 거점으로 한 경제활동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을 그 중 하나의 사업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말경에 평양으로부터 5명의 원화맨이 더 충원될 예정이라고 전한다.

삼자연창작사는 북한의 조선출판물교류협회 소속으로 있는 진명무역회사 내의사업조직이다. 조선출판물교류협회는 중앙당의 선전선동부 산하로서 외국과의 각종 문화교류를 전담하고 있는 북한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창구'라고 북한의 언론들은 전한다. 언론들은 협회가 "세계 각국과의 친선과 이해를 도모하려는 이념 밑에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조선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자료를 공급해 주는 유일한 공식문화교류기관"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68년 2월 설립되어 출판물 발행과 수공예품 창작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사업을 펴나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제작되는 각종 도서와 함께 명승지나 역사적 사건 등을 소개한 녹화테이프, 노래를 수록한 CD, 미술품 등을 취급한다. 평양과 지방 각지에 1백20여 개의 창작 및 제작소를 두고 해마다 5만여 점의 조선화(동양화의 일종), 유화, 수예, 보석화, 조각, 서예, 민예작품 등을 창작하며, 이것을 약 100개 나라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협회는 국제전람회, 국제미술작품 및 민예품 전람회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사진 12> 삼자연창작사가 위치한 중국 단둥 시내 싼마루 도로 변의 건물. 1층에 삼자연미술전람관, 2층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협회는 2003년 중반에 중국 단둥에 삼자연창작사를 설립하고, 수예, 유화, 조선화 등을 주문 제작하는 사업을 벌여오다가 2004년 8월 애니메이션

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삼지연창작사는 현재 중국 장춘전영제편창(일명장춘영화촬영소) 산하 아동영화촬영소의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6아동영화촬영소와 마찬가지로 대남사업 승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 일감을 직접 처리하지는 못한다.

3.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의 남북한 비교

3.1. 2D 애니메이션의 제작방식 비교

남북의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필자 등이 북한의 애니메이터들과 만나 수 차례 토론하거나 작화 테스트를 한 결과 2D애니메이션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북한의 원화맨은 원화를 그릴 때 동화 수준으로 아주 깨끗이 그린다. 원화맨이 거칠게 그린 원화를 크린업(Cleanup) 담당이 재정리하는 남한과 크게 다르다.

둘째,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한에서는 크린업된 원화일지라도 동화맨이 동일하게 다시 그리고 본래의 원화를 작품 제작에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동화맨이 원화를 다시 그리지 않는다. 원화맨이 그린 원화를 동화 사이에 끼워서 직접 제작에 사용한다. 원화가 동화 수준으로 깔끔할 뿐만 아니라 완성도 높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원화맨은 남한보다 더 많은 수의 원화를 그린다. 레이아웃에 표현된 연기형상 의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원화와 원화 사이에 '중간원도'라고 불리는 또 다른 원화를 끼워넣는다. 이 중간원도는 남한에서는 동화맨이 동화로 여기고 작화하는 그림이다. 이에 따라 동화맨의 일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동화맨을 매우 수동적이며 기능적인 직종으로 퇴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넷째, 북한에서는 애니메이션 연출에 실사영화 연출가를 활용한 적이 많았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연출가와 책임미술가의 직책이 따로 있어서 연출가는 연기형상 만을 보고, 책임미술가는 조형 형상을 감독했다고 한다. 이때 연출의 몫은 실사영화를 전공한 연출가가 맡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화 형상을 지도할 수 없는 실사영화 연출가들을 제작현장에서 거의 배제했으며(특히 해외 합작일에서는 완전히 배제한다), 연출가와 책임미술가라는 두 직책을 한 사람이 같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직책에 진출하는 사람을 원화맨 출신에서 뽑았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와 합작

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은 말한다. 남한에서는 해외 수주 일감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원화감독 출신들이 연출가의 직책을 수행해 왔지만, 자체 제작물에 대해서는 원화감독 출신뿐만 아니라 영화감독이나 미술대학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연출가 역할을 맡기도 한다.

다섯째, 북한은 규칙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약하다. 타임시트나 작화지 상에 많은 규칙들이 기술되고, 이것들에 대해 더 이상의 인적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하자 없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남한은 제작 공정별로 제작사가 다를 정도로 많은 회사들(또는 국가들)이 협력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규칙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4.26아동영화촬영소 1개 제작사만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왔고, 이 안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적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했다. 따라서 제작 분업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제작 규칙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은 기술 습득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남한의 애니메이터들 중 상당수는 특정 제작사에 고용되지 않은 자유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 받는다. 자신이 그린 그림의 매수 등 계량 가능한 결과물의 양에 따라 대가가 결정된다. 월급제 직장인은 흔한 예가 아니다. 그런 탓에 불안정한 직업환경에다가 치열한 경쟁의식이 상존하여 기술 습득에 민감하다. 반면 북한의 제도는 애니메이터들에게 안정적인 직업환경을 제공하지만 기술 진보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측면이 있다.

일곱째, 북한의 원화맨은 평생 원화만 그리고, 동화맨은 평생 동화만 그린다. 또 원화맨과 동화맨 사이에 상하 개념이 없다. 기껏 원화맨에게 장점이 있다면 연출가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이에 반해 남한에서는 동화맨은 원화맨을 지향하고, 원화맨은 감독을 지향한다. 동화맨을 거쳐 원화맨으로 진출하는 상하개념이 이 두 직종 사이에 존재한다. 때문에 남한의 애니메이터들은 동화와 원화를 두루 경험하여 상당히 숙련된 작화기술을 갖게 되지만 북한의 애니메이터들, 특히 원화맨들은 다양한 작화기술과 숙련도가 부족하다.

3.2. 전문용어 비교

남과 북이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전문용어들은 서로 다른 것이 많다.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는 영어를 그대로 따다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심지어는 일본어의 영향까지도 잔존해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여 부르는 용어가 거의 대부분이다. 북한 애니메이터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이들 용어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남북 애니메이션 전문용어 비교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비 고
검열원	감독, 작감	북한은 각 공정마다 검열원을 둠.
고정기	페그바, 타프	Pegbar, 타프는 일본말에서 유래.
그림대본	스토리보드, 콘티	Storyboard, Continuity
동화미술가	동화맨	
리용카트	겸용커트	S/A, Same as
모델	캐릭터	Character
미술대본	스토리보드, 콘티	Storyboard, Continuity
배경미술가	(배경)	남한은 용어 없이 업무명으로 호칭.
빠노	팬	Pan
선검사	라인테스트	Line test
선복사	체록스	
연출가	감독	
영화문학	시나리오	
영화문학작가	시나리오작가	
영화미술가	애니메이터	만화영화일 경우
영화촬영가	(카메라, 촬영)	남한은 용어 없이 업무명으로 호칭.
원도	원화	
원도미술가	원화맨	
원도가	원화맨	

원화	원도	남한은 배경원도 등으로도 사용.
입력	스캔, 입력	Scan
입력공	(스캔)	남한은 용어 없이 업무명으로 호칭.
작업지시표	타임시트, 엑스시트	Time sheet, X-sheet
중간원도	(동화)	북한은 원화 사이를 한번 더 쪼갬.
채색	칼라, 페인팅	Color, Painting
채색원	칼라맨, (칼라, 페인팅)	남한은 업무명으로도 호칭.
책임미술가	감독, 총감독	
초고록화촬영기	라인테스트기	
초별찍기	스캔, 입력	Scan
촬영표	타임시트, 엑스시트	Time sheet, X-sheet
컴퓨터그래픽창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편집원	편집기사	
화면구도	레이아웃	Layout
화면구도창작가	(레이아웃)	남한은 용어 없이 업무명으로 호칭.
화술배우	성우	

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전망 및 대정부 제언

4.1. 남북합작의 당위성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소 성급한 사람들은 영화부분에서의 남북간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화에 대해서 갖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이러한 전망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특히 2000년 8월 남한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한 자리에서 그는 매우 구체적인 언사로 애니메이션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는 당초의 예상에 비해 크게 밀돌았다. 영화진흥위원회나 몇몇 애니메이션업체들이 나서서 북한측과 물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러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교류사업은 다섯 손가락에도 꼽히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은 더욱 적다. 이는 남한 내 애니메이션업계의 영세성이나 작품 기획력의 취약성 탓도 있겠지만, 남북간의 불안정한 사업 여건이 극복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간 애니메이션 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에 못지않게 민족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일구어내야 할 긴요한 과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대중성과 비정치성은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남북간 이질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일 것이 틀림없다. 애니메이션만큼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매개체도 드물거니와, 어린 시절의 예민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받아들인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일생을 관통하여 흐르는 정신적 자양분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또 북한의 실사영화가 정치성이 짙은데 반하여 애니메이션은 남북 모두 비교적 비정치적이다. 북한이 우려하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색바람이나 남한이 기피하는 공산주의의 빨간 물이 스며들 근거가 박약하다. 이런 장점 위에 애니메이션의 예술성과 상업성이 더해지면 쌍방에 무시 못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이미 애니메이션은 세계시장에서 문화산업의 대표적 장르로 새 위상을 정립했으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대단히 커졌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교류는 남북 쌍방을 가깝게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산업활동으로 역할 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은 해외 OEM 작품 제작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남한은 최근 많은 OEM물량을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다. 하청물량 의존도가 큰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형편에서는 심화되는 하청물량 감소가 곧바로 시장의 침체로 이어진다. 중국은 상해와 광주, 심양, 장춘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의 작품을 대량수주하고 있다. 2001년에는 TV시리즈물 기준 500편 규모의 외국 OEM물을 제작했으며, 근년 들어서는 그 제작량이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남한이 수주한 OEM물량이 중국에 재하청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남한은 동화 작화 및 채색 공정 일감의 상당량을 중국에 발주한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제작비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원화와 동화, 채색 등 메인 프로덕션부문에서 많은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잖다.

따라서 중국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구조를 가진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마케팅능력이 결합한다면 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02년 남한이 해외 OEM물을 하청및 재하청하여 얻은 매출액은 2000억 원이며, 제작하는데 동원된 종사원수 4천여 명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과의 합작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북한 종사원 약 1000명을 합작사업에 동원했을 때 산술적 계산이지만 500억 원 가량의 매출액 증가가 기대된다. 현재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종사원 1000명을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약 600만 달러(72억 원)라고 유추할 때 남한과의 합작시에는 이보다 약 7배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합작시에 강화된 시장 경쟁력까지 여기에 더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평양에서 3년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유럽의 한 대북사업 전문기업인은 애니메이션사업을 대북유망사업의 첫 손가락에 꼽은 바 있다. 스위스계 다국적 엔지니어링그룹인ABB사의 전 북한사무소장 펠릭스 압트는 2004년 2월 한-스위스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 및 영상사업, 중고기계 판매사업, 광업,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 최고급 소비재산업을 대북한 5대 유망사업으로 소개하면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사업을 이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로 전망했다. 그는 2004년 초 프랑스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아스테릭스'의 경우를 예로들면서 "이 작품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서 제작될 정도로 북한에는 애니메이션 분야에 우수인력이 많다"고 전했다.

4.2. 남북합작시 기대효과

결국 남북 애니메이션 합작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는 애니메이션업계가 합작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의 마련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 하겠다. 남북 합작은 남북의 사업적 장점을 잘 살린 환경 조성도 큰 고려요인이거니와,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 및 국제정치적인 변수들이 사업조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현대아산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해 개발이 진행중이 개성공단이 애니메이션계에 있어서도 차후합작사업의 주무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남북 양 정부가 나서서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산업인프라를 보장하는 까닭에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건설계획에 따르면 현대아산과 토지개발공사는 총 10억 달러를 투자, 2천만 평(공단부지 8백만 평, 배후도시 1천2백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별로 건설한다. 2004년 10월 말 현재 2만 8천 평에 대한 시범공단지역을 개발하면서 남한 기업들이 공장건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2004년 12월에 첫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늦어도 2005년 초에는 기업들의 입주 that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04년 10월 말에 공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공식 발족되었고, 토지공사 개발사무소도 문을 열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면 남한 애니메이션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업계가 개성공단을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가 기대되는 효과를 전망해 본다.



<사진 13> 개성공단 위치도

첫째, 애니메이션 제작공정의 일부를 개성공단으로 이전하면 남한의 입장에서는 서울 인근에 배후제작기지를 얻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개성은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며,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울 시내에서 공단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다) 각종 연계의 편익이 뒤따른다. 해외 하청일의 경우 긴박한 제작시간, 하청자와 발주자의 빈번한 접촉이 필수적인데 개성공단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모두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외국이나 지방보다 여건이 좋아진다.

둘째,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업계의 구조조정 촉진과 국제적 경쟁력 향상, 수익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처럼 남한은 고임금으로 인해 저기술분야에서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북한 인력의 활용은 중국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크리라고 판단된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 내에서의 협작이 만만치 않은 경제적 이득을 그들에게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노동력의 고용 증대를 기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기업내의 상시 제작인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인력 양성 및 남한의 선진경영기술 습득 효과가 있다. 이는 곧바로 북한 자체 내의 애니메이션의 질적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인 애니메이션 산업을 자연스럽게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합작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로 국제거래의 신인도가 제고되고 수익성이 증대된다. 남한의 기획력과 마케팅능력, 북한의 제작력이 결합하여 국제시장에 진출했을 때 북한으로는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밝히지만 필자 등은 개성공단만을 전제로 애니메이션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개성공단과 비슷한 다른 지역(그 지역이 설령 평양일지라도)도 개성공단과 같이 제반 사업환경이 보장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대 효과들은 마찬가지로 유효할 것이다. 또 사업 환경은 개성공단보다 많이 부족할지라도 남한의 개별기업이 북한의 개별기업과 공동으로 단단한 별도의 사업 여건을 구축한다면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기대효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믿는다.

4.3. 대정부 제언

그러나, 남북 합작의 당위성이 존재하며 합작시의 성과가 분명히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이나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측과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널리 퍼져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애니메이션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아직까지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북한애니메이션계에 대한 정확한 기술수준 측정이 안돼 있고, 실제 남한 업계의 물량 의존도가 높은 해외 OEM 일감을 남북 합작으로 처리해본 경험이 전무하다.

둘째, 북한과의 교류 환경이 열악하다. 해외 OEM 일감의 경우 제작기간과 품질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담보할 수 없다. 교류 초기에 북한 의존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2D애니메이션의 원화 및 동화의 작화, 컴퓨터 채색등의 공정은 매우 짧은기간에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과의 1일권 이내의 오프라인 배송시스템 구축, 상시 활용 가능한 전산망 및 전화망 등의 통신시스템 구축, 빈번한 인적 접촉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애니메이션업계가 영세하다. 일반적으로 북한과의 합작사업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의 합작사업들이 명목상의 사업에 치중하여 채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후유증이기도 하고, 실제로 북한의 열악한 산업인프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보다 더 많은 초기투자를 요구하는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적 여론을 감안하여 필자들은 교류 초기의 효과적인 남북합작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애니메이션교류센터(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남북 합작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자 및 정부, 유관기관(영화진흥위원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이 나서서 공동으로 이러한 센터를 설치하여 남북합작사업에 공동 창구로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남북 경제교류 형편으로 보아서 교류센터는 남북 각 3명 정도의 상주인력으로 개성공단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교류센터는 남북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에 집중하여 일감 전달통로로서, 통신(전산망, 전화망) 연결통로로서, 인적 접촉통로로서, 필요시 교육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북한측의 애니메이션 제작시설이나 인력이 교류초기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구태여 개성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 개성이든 평양이든 교류센터가 연락창구 역할만 잘 수행하면 거리상의 문제가 큰 고려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처럼 교류센터가 설치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남북합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모두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교류센터를 활용하여 채산성을 갖춘 남북 애니메이션 합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류센터를 개성에 설치한다는 전제 아래 교류센터의 임무 및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겠다.

첫째, (일감 전달통로) 교류센터를 통해 남북한의 일감을 직접 주고받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청일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국가인 중국보다 전달시간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빠르고 운송비가 저렴하다. 남북한 업계가 평양(제작시설이 평양에 있다는 가정하에서)-개성간, 서울-개성간의 1일 2-3회 공동 오프라인 배송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효과는 몇 배 더 커질 것이다.

둘째, (통신 연결통로) 교류센터가 통신의 중계기지가 되도록 한다. 남북간에 직접적이고도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할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곤란하다. 그러나 평양-개성간, 개성-서울간의 통신은 그것이 전산망이든 전화망이든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질 것이 분명하며, 현재 관계당국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센터가 중계하여 남북간에 간접통신이 가능하여 전산망을 활용하는 일감 유통과 긴급 업무연락 등에 많은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셋째, (인적 접촉통로 및 교육시설) 센터가 남북 인적접촉의 장으로서 기능 하도록 한다. 남북간에 합작을 협의할 때, 작품제작상의 교육이 필요할 때 평양에 직접 가서 협의하거나 교육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은 뻔하다. 또 평양은 자주 갈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반하여 개성은 매일이라도 갈 수 있으니 긴밀한 협의나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류센터 설치가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추측된다. 북한은 이미 대남애니메이션사업을 전담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평양정보센터에 설치하고 남한측 기업과 합작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사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앞으로 일정기간 북한최대의 애니메이션 제작기관인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대남사업자로 전면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측에서도 교류센터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자면 풍부한 대북 접촉 경험을 가진 관계자들을 내세워 북한과 협상해야 하며, 유관기관이 단결하여 창구 단일화를 꾀해야 한다. 때로는 현재의 남북애니메이션 교류 사업자들과 동공전선을 구축하거나 그들의 교류 환경을 확대케 하거나 수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부나 관련 기관, 애니메이션업계의 진지한 검토가 요망된다.

북한 애니메이션 인명록

- 일러두기 -

1. 1945년 8.15해방 이후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북한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애니메이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2. 수록 내용은 이름, 성별, 생몰연대, 직업, 경력, 작품 및 저서, 참고문헌 등이다. 성별은 여성으로 확인된 경우만 표기했다.
3. 표제어가 되는 이름(성과 이름)은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측 표기법을 무시하고, 찾기에 편리하도록 두음법칙을 적용했다.
(예) 김룡권 -> 김용권, 로승희 -> 노승희
4. 이름 이외의 고유명사는 북한식 표기가 남한의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예) '다람이와 고슴도치', '령리한 너구리', '우리 집 오토기'
5. 수록 인물의 선정과 해당 인물의 이력은 북한에서 발행되는 각종 예술서적 및 언론보도, 필자들의 직접 취재를 참고했다. 북한 출판물이나 언론 매체의 오탈자에 의해 동일인이 이중으로 표기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동일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또 특정인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해당 인물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룬 참고문헌이 존재할 경우 그 서명, 또는 매체명을 참고문헌에 밝혔다.
(예) 작품 -> 작=, 참고문헌 -> 참=
6. 수록 인물의 직업은 가급적 북한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 영화미술가(원화맨, 또는 동화맨), 영화문학작가(시나리오작가), 화술배우(성우), 편집원(편집기사)
7. 여기에 수록된 인명은 '북한영화인명사전'(이정 편저, 영화진흥위원회, 2003)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인명을 발췌, 보완한 것이다.

강도구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마지막 한번'(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소년과 구렁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독 안에 든 여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강태영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주로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 시리즈물을 많이 촬영했다.

작=[촬영] <아동영화> '메돼지네 담장'(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물에 빠진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여우의 매방울소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1989, 1991)

고병화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1991년 동 아동영화창작단 단장을 지냈다. 1991년 제1차 조선영화축전에서 아동영화 '소년장수'로 2.16촬영상을 수상했다. 공훈예술가 칭호, 노력훈장을 받았다.

작=[촬영] <아동영화> '구멍을 뚫힌 쥐'(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도적을 쳐부신 소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먹이를 찾던 두 짐승'(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남수의 환상'(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다시 돌아온 꿈'(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달나라 만리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알을 찾은 물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재미있는 이야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피 있는 개미'(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산삼꽃'(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금붕어가 물어온 무우씨'(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유희장에 간 꿀꿀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권명선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마지막 한번'(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경호(1969~)

영화미술가.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했다.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를 지냈다. 삼지연 창작사 단장이다. 조각가 김재경의 아들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관선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광성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연출가, 4.26아동영화촬영소제1창작단 연출가(현)가 되었다. 1991년 제1차 조선영화축전에서 아동영화 '소년장수'로 2.16연출상을 수상했다. 1991년 만화영화합작대표단 단장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1997년 6월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얼룩이의 손자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연출] <아동영화> '도적을 쳐부신 소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1989, 1991)

'피 있는 개미'(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소년장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얼룩이의 손자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광수(1972~)

컴퓨터그래픽창작가. 4.26아동영화촬영소 3D화상처리실 컴퓨터그래픽창작가이다.

작=[컴퓨터그래픽] <아동영화> '셋째의 착한 마음'(4.26아동영화촬영소, 2002)

김광혁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김길남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소년장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김나벽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연출가이다.

작=[연출]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잘못 낀 안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마지막 한번'(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돌배 따러 가는 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명희

작곡가.

작=[작곡] <가요> '노래 부르자 우리는 청년분조'(1980)

<영화음악> 아동영화 '도적을 쳐부신 소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제일 큰 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차에서 떨어진 승냥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다시 돌아온 꿈'(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령리한 너구리 - 높이 재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령리한 너구리 -스키경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령리한 너구리 - 후보선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예술영화 '우리 대의원'(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8) <영화삽입곡>
 '과학의 높은 봉에 오르자'(아동영화 '남수의 환상', 1986)
 '다정한 동무'(아동영화 '우쫄대던 개구리', 1986)
 '그 사랑 못 잊어'(아동영화 '소년장수' 제12부, 1990)
 [논설] '학령전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려 쓰자'(1991)
 [음악평론] '학령전 아동문학의 고전적 본보기 - 유년동요 자장가에 대하여'(1992)

김상희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성희(여) (1975~)

작곡가. 1999년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영화 및 방송음악단 작곡가이다.

작=[영화음악] <예술영화> '멀리에 있는 섬'

<TV드라마> '침단선', '삶의 밀천', '심장으로 보는 처녀'(1998)

<아동영화> '방울소리'

참='조국'(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2003. 1)

김수화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돌배 따러 가는 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영철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판화] '오가산 마루에서'(1986)

[조선화] '철길 우에 피는 꽃'(1986), '함부로 날뛰지 말라'(1991), '전승의 아침'(1994)
 '승리의 아침'(1995)
 [산업미술] '경축야외무대도안'(1988)
 [영화미술] <아동영화> '다시 돌아온 꿈'(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령리한 너구리 - 후보선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재미있는 이야기 - 세 동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피 있는 개미 - 제4부 강을 건너온 과일'(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소년장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얼룩이의 손자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소년포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약쌈을 찾아 떠난 두 소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김용권

영화문학작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작가이다. 1991년 제1차 조선영화축전에서 아동영화 '소년장수'로 2.16영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용찬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연출가이다. 1992년 만화영화합작대표단 단장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작=[연출]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김유경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소년과 구렁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유성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인선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재홍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김계홍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종철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얼룩이의 손자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주신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김준욱

영화연출가, 영화문학작가.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태어났다.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만화영화창작단 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연출가를 지냈다. 4.26아동영화촬영소 연출실장이다. 인민예술가 칭호, 1992년제2차 조선영화축전에서 2.16영화문학상, 2001년 5월 김일성상을 받았다.

작=[시나리오, 연출]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소년장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연출] '다람쥐와 고슴도치'

김창규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창호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잘못 나눈 보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소년과 구렁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소년포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독 안에 든 여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김창훈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마지막 한번'(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돌배 따라 가는 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철수

예술행정가. 1994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했다. 4.26아동영화촬영소 현장기사를 거쳐 기술부문 부총장을 맡고 있다.

참=조선중앙텔레비전(2001. 10. 15.)

김철진

예술행정가. 4.26아동영화촬영소 총장이다. 2001년 5월 김일성 주석 명의의 시계표창을 받았다.

김충성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연출가이다.

작=[연출] <아동영화> '제일 큰 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황금덩이 박주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손해 본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김태홍

예술행정가. 4.26아동영화촬영소 단장이다. 2001년 5월 김일성 주석 명의의 시계표창을 받았다.

김택전(1939~)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를 거쳐 4.26아동영화촬영소 미술가를 지냈다. 지금은 삼지연창작사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범을 타고 온 소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김하벽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연출가이다. 1980년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작=[연출] <아동영화> '소년포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김혜숙(여)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호동왕자와 락랑공주'(1991)

김화성

영화문학작가. 4.26아동영화촬영소 작가이다.

작=[영화문학] <아동영화> '신기한 수정구슬', '사람과 재물', '다람이와 고슴도치'

ㄴ

노승희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ㄷ

도철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약샘을 찾아 떠난 두 소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ㄹ

마죽희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연출가이다.

작=[연출] <아동영화> '꿀꿀이가 본 온도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여우가 놓은 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꿀단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남수의 환상'(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알을 찾은 물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꿀벌과 등에'(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맹순정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잘못 낀 안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유희장에 간 꿀꿀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문성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문창일

영화미술가. 4.26아동영화촬영소 원도실장을 지냈다. 지금은 삼지연창작사 원도실장이다.

남

박철호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재간둥이 멍멍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박태술

영화문학작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작가이다.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물에 빠진 너구리'(1986)

'호박 따는 날'(1986), '남수의 환상'(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다시 돌아온 꿈'(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알을 찾은 물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범을 타고 온 소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약쌈을 찾아 떠난 두 소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유희장에 간 꿀꿀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방순영

영화문학작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작가이다.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꽃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백연희

영화미술가.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백인선

작곡가.

작=[작곡] <가요> '풍년모를 어서 내세'(1976)

'우리는 3대혁명소조원'(1978), '이선남폭포의 노래'(1981), '사랑하는 나의 일터'(1988), '나를 불러다오'(1988), '우리는 집을 떠나왔네'(1990)

<영화음악> 아동영화 '재미나는 이야기 - 외나무다리에서'(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메돼지네 담장'(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여우가 놓은 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버들그네'(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알을 찾은 물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예술영화 '나의 고지'(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1991), '내가 사랑하는 처녀'(평양연극영화대학, 1992)

<영화삽입곡> '떨어져선 못살아'(아동영화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1990)

'심장 깊이 새긴 것 무엇이던가'(예술영화 '세 번째 금메달', 1990)

백학

영화미술가. 1987년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했다.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를 거쳐 4.16아동영화촬영소 대본미술가로 활동한다. 화가 백학훈의 아들이다.

작=[책임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26, 30, 35부), '삐쁘와 에르꿀', '검은 해적', '썸바'

入

사상준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창작단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재미나는 이야기 - 외나무다리에서'(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제일 큰 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없어진 생일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우쫌대던 개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황금덩이 박주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손해본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소년장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1993)
 '얼룩이의 손자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연출] <아동영화> '깡충이가 푼 숙제문제'(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누구의 잘못인가요'(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잘못 나눈 보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손정식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소년장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손중권(1942~)

영화연출가.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졸업했다. 1965년부터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제작단 연출가로 활동했다.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아동영화제작단 단장이다. 1991년 5월 공훈예술가 칭호와 노력훈장, 1992년 제2차 조선영화축전에서 아동영화부문 2.16영화연출상, 2001년 5월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작=[연출] <아동영화> '메돼지네 담장'(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물에 빠진 너구리'(1986), '없어진 생일날'(1986), '우쫌대던 개구리'(1986)
 '다시 돌아온 꿈'(1988), '령리한 너구리 - 후보선수'(1988)
 '재미있는 이야기 - 세 동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령리한 너구리 - 제18부 랭동차 안에서'(1989), '뱀을 타고 온 소년'(1989)
 '소년장수 - 제10부 성루의 종소리'(1989)
 '소년장수 - 제20부 대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령리한 너구리 - 제32부 노 없는 배로'(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범을 타고 온 소년(제2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소년장수 - 제30부 돌두령의 비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소년장수 - 제31부 해불 신호'(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송영숙(여)

화술배우. 1991년부터 4.26아동영화촬영소 화술배우(성우)를 지냈다. 동 배우실장이다.

작=[출연] <아동영화> '영리한 너구리', '다람이와 고슴도치'



안병채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제일 큰 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제일 큰 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달나라만리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알을 찾은 물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안용진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풍년벌에서 있는 일'(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오광성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영리한 너구리(제14부 응당한 봉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영리한 너구리(제16부 야구경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영리한 너구리(제18부 랭동차 안에서)'(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오순남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1991년 제1차 조선영화축전에서 아동영화 '호동왕자와 락랑공주'로 2.16미술상을 받았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호동왕자와 락랑공주'(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0)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시나리오]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오신태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원정숙(여) (1953-)

화술배우.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했다. 4.26아동영화촬영소 화술배우(성우)이다.

작=[출연]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 '다람이와 고슴도치', '전화소동', '멍멍이 벽시계', '재채기한 조각', '너구리와 승냥이'

참='금수강산'(2004. 8)

위기석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거북기가 만든 초롱'(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유충웅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연출가를 지냈다. 4.26아동영화촬영소 제5창작단 단장이다. 1997년 6월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작=[연출] <아동영화> '차에서 떨어진 승냥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호박 따는 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피 있는 개미 - 딸기 따는 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달나라 만리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거북기가 만든 초롱'(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꽃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금붕어가 물어온 무우씨'(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풍년벌에서 있는 일'(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시나리오] <아동영화> '차에서 떨어진 승냥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잘못 나눈 보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윤영길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이경철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피 있는 개미 - 딸기 따는 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남수의 환상'(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알을 찾은 물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꿀꿀이의 마음'(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소년장수(제9부 마지막 화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잘못 낀 안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돌배 따라 가는 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이경훈

작곡가.
작=[작곡]
<영화음악> 아동영화 '피 있는 개미 - 딸기 따는 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순해 본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재미있는 이야기 - 세 동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예술영화 '우리 영심이'(평양연극영화대학, 1988)
'제2전선 1부'(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1989)

'음악가 정률성'(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1991)
예술영화 '제2전선 2부'(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1991)
<영화삽입곡> '고향에 전해다오'(예술영화 '5시부터 5시까지', 1990)
'내 고향 정든 땅'(예술영화 '고향땅', 1990)
'세월이 흘러도 영원하리라'(예술영화 '세월은 흘러도', 1990)

이기섭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꿀단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꿀벌과 등에'(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풍년벌에서 있는 일'(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이영일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렁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이영호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1992년 제2차 조선영화축전에서 2.16
영화촬영상을 수상했다.
작=[촬영] <아동영화> '꿀꿀이가 본 온도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여우가 놓은 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차에서 떨어진 승냥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렁리한 너구리 - 높이 재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렁리한 너구리(제16부 야구경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9)
'렁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이영훈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렁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이원택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범을 타고 온 소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이인철(1964-) <사진 8> '령리한 너구리'의 주인공 너구리 캐릭터

영화연출가. 4.26아동영화촬영소 연출가이다. 북한 아동영화계에서 '영화창작의 사령관'으로 불리고 있다.

작=[연출] <만화영화> '알라공' (1994), '거부기와 벌새'(2001)

참=조선신보(2001. 10. 1)

이중순(李鐘順)(?-1997)

영화문학작가. 함경남도 북청군 지만리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일본 문학교원에게 개별적으로 문학수업을 받았다. 1948년 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 6.25전쟁 때 인민군위문단 정리책임자, 1955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 1959년 조선영화인동맹 상무위원, 1962년 동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영화문학창작사 부사장, 1980년 6월 백두산창작단 부단장, 1982년 2월 조선영화인동맹 위원장, 4.15문학창작단 부단장을 맡았다. 1962년 영화인대표단 단장으로 소련을 방문했다. 1981년 노력영웅 칭호와 국가훈장 제1급, 1986년 영화문학부문 김일성상, 1990년 12월 김일성상을 받았다. 1997년 11월 3일 사망했다. 시나리오 '조선의 별'(10부작)은 북한 영화예술분야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작=[시나리오] <예술영화> '준령을 넘어서'(1959),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1960)

'두만강'(1960), '붉은 꽃'(1963), '그 날을 잊지 말자'(1963)

'한 지대장의 이야기'(1966),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1978), '조선의 별'(1981)

'조선의 별'(제4-6부)(1982), '조선의 별 제7부 남만에서'(1983)

'조선의 별 제8부 저물어 가는 1932'(1984), '조선의 별 제9부 로혹산의 전설'(1985)

'잊을 수 없는 나날에'(1986), '조선의 별 제10부 불타는 근거지'(1988), '두만강', '붉은 꽃', '축배'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희곡]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공동작, 1954),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1960) [소설]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1970)

[논설] '시대와 함께 발전한 우리 예술영화'(1967), '당의 령도 밑에 찬란히 개화 발전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영화예술'(1974)

[작사] <가요> '동지애의 노래'(1983),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1984), '기쁨 싣고 달리는 말발구'(1987)

[저서] <장편시나리오> '조선의 별(1-6부)'(문예출판사, 1983), '조선의 별(7-10부)'(문예출판사, 1988)

이하규

작사가.

작=[작사] <가요> '꽃피는 맹산'(1986), '야루젤스끼 동지 환영의 노래'(1986), '혁명의 대를 이어 우리는 가네'(1986) <영화삽입곡> '그 사랑 못 잊어'(아동영화 '소년장수 제12부', 1990)

이혁수

작사가.

작=[작사] <가요> '꽃 피는 북청땅'(1971), '청춘을 바쳐 내 조국 빛내리'(1978), '은혜로운 해빛 아래 금나락 설레이네'(1978), '언제나 병사시절처럼'(1988), '사랑하는 나의 일터'(1988), '그대의 아들로 효성을 다하리'(1989), '예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오'(1990), '명령은 조국의 믿음'(1991)

<영화삽입곡> '추억의 노래'(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1985), '과학의 높은 봉에 오르자'(아동영화 '남수의 환상', 1986), '금별로 수놓아 갈 북무의 나날이여'(예술영화 '아들들', 1986), '오고 가는 한 마음'(예술영화 '아들들', 1986), '예보다 정든 거리 더는 없어라'(예술영화 '네거리 초병', 1986), '청춘의 그 마음 아름다워라'(예술영화 '참된 심정', 1986), '첫 동지'(예술영화 '첫 동지', 1990)

임창규

영화문학작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작가이다.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꿀꿀이가 본 온도계'(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없어진 생일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임홍은(1914~)

영화미술가, 화가. 1914년 5월 3일 황해남도 재령군 재령읍에서 태어났다. 재령 명신보통학교, 명신중학교를 졸업했다. 미술공부를 위해 일본대학 예술과에 입학했으나 가난으로 1937년 2년만에 중퇴했다. 서울로 가서 1940년까지 아동잡지 '아이생활'을 편집했다. 1939년 첫 작품 유화 '모자'가 선전에 출품되었다. 1944년까지 서울에서 제약회사 미술원으로 일했다. 8.15해방 뒤 재령 명신중학교 교원, 어린이잡지사 기자, 1956년까지 로동신문사 화실편집원, 국립미술제작소 부소장, 동 소장을 지냈다. 1957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미술가로 활동한다. 송화미술원 명예교문을 겸한다. 제1차 국가미술전람회에서 입상했다. 1994년 6월 팔순을 맞아 첫 개인전을 가졌다. 1994년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아내 계복영은 수예가이고, 아들 임은성, 임철성, 임창성은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신기한 복숭아'(1960), '금도끼와 쇠도끼'(1960), '꼬마 붉은별'(1961), '우리 동산'(1962), '체비 삼 형제'(1964), '고무풍선'(1965), '놀이 먹는 꿀꿀이'(1969), '이상한 종이장'(1971), '개미와 베짚이'(1973), '애기나무와 수동이'(1973), '용감한 기러기'(1975), '꼬마선수 이겼다'(1975), '누렁이와 얼룩이'(1976), '너구리의 높이뛰기'(1977), '령리한 너구리'(1987) <예술영화> '민족의 태양', '춘향전'(1958), '홍길동전', '하랑과 진 장군'(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2), '해발'(백두산창작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5), '온달전'(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6)

[유화] '모자'(1939), '농촌의 어린이'(1940), '고원 빨찌산'(1952) [조선화] '농민'(1940), '황해도 풍속도'(1941), '기뻐하는 인민'(1947)

[선전화] '우리 민족은 하나이다'(1948), '공화국인민들이여 우리 인민군대를 사랑하며 적극 원호하자'(1948), '조국을 위하여 모두 다 전선으로'(1950), '대구로 려수로 부산으로'(1950), '녀성들이여 세계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앞으로'(1956)

[수채화] '첫날 색시'(1956), '대동문'(1958), '농악'(1961), '풍년차'(1961)

[저서] <그림책> '백두산' (1955), '우리 나라 좋은 나라'(1959), '여러 가지 그림'
(1959), '즐거운 명절'(1960), '고운 새들'(1964)
참= '조선력대미술가편람'(이재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ㄱ

장영철

영화미술가. 조선과학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렁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장철수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연출가이다.

작=[연출] <아동영화> '렁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장태을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독 안에 든 여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정광근

영화촬영가. 4.25아동영화촬영소 부촬영가이다. 2002년 9월 노력훈장을 받았다.

조광철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거북기가 만든 초롱'(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꽃다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풍년벌에서 있는 일'(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유희장에 간 꿀꿀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조상철

예술행정가. 4.26아동영화촬영소 부총장이다. 1997년 6월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

조재광

영화연출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연출가이다.

작=[연출] <아동영화> '소년과 구렁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독 안에 든 여우'(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조계현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꽃다리'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금붕어가 물어온 무우씨'(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조철영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잘못 나눈 보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주명류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잘못 낀 안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진공훈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메돼지네 담장'(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물에 빠진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없어진 생일날'(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우쭈대던 개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황금덩이 박주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차계옥

영화문학작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작가이다.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제일 큰 힘'(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우쫄대던 개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다정한 동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6)

'재미있는 이야기(세 동무)'(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채경원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구멍을 뚫힌 쥐'(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먹이를 찾던 두 짐승'(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5)

<예술영화> '우리 인민반장'(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6)

채현우(1955~)

영화미술가.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했다.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 4.26아동영화촬영소 미술가를 지냈다. 4.26아동영화촬영소 컴퓨터창작단장이다. 무대미술가 채남인의 아들이다.

작=[영화미술] <과학영화> '배추청벌레를 죽이는 생물농약'(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농작물과 카리비료'(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참='통일신보'(2003. 1. 18)

최만선

예술행정가. 4.26아동영화촬영소 부총장이다. 2001년 5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표창을 받았다.

최명조

영화연출가. 4.26아동영화촬영소 연출가이다.

최일찬

영화미술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작=[영화미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최재현(崔在賢)

예술행정가. 1985년 8월 평양영화연극대학 학장, 1984년 5월 문화예술부 부부장, 4.26 아동영화촬영소 총장, 1997년 4월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소장, 평양비동맹영화축전 조직위원장, 1998년 9월 문화상(현)이 되었다. 1997년 6월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최태형

영화문학작가.

작=[시나리오] <아동영화> '거북기가 만든 초롱'(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아동영화 '금붕어가 물어온 무우씨'(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아동영화 '풍년벌에서 있는 일'(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중

한봉기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한영철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소년장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1992), '약샘을 찾아 떠난 두 소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2)

한준석

작곡가.

작=[작곡] <영화음악> 과학영화 '꿀단지'(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88) <영화삽입곡>
'무식한 지주놈 지고 말았네'(아동영화 '피동이', 1990)

함봉기

영화촬영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촬영가이다.

작=[촬영]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1991)

홍중철

영화미술가. 4.26아동영화촬영소 미술가이다.

1999 - 200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

2004년 12월 일 인쇄

2004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_ 이충직

발행처 _ 영화진흥위원회

130 - 0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 - 46

T. 02 - 9587 - 657 F. 02 - 9587 - 625

<http://www.kofic.or.kr>

제작대행 _ 태림애드넷

100 - 193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5 - 4 성진빌딩 505호

T. 02 - 2269 - 1265 F. 02 - 2268 - 0704

정가 : 5,000원

© 2004 영화진흥위원회

이 책의 저작권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 허가 없이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합니다.